



▲5월 12일 실태조사자문 및 설명회 (조사원들 인사)



▲6월 28일 거리캠페인 (기업은행)



▲7월 7일 거리캠페인 (또왔다식당)



▲7월 12일 거리캠페인 (줄줄상사)

함께 한 사람들 • •

공동집필자

김성기, 최창준(민주노동당 서울성동구지역위원회)/ 문종찬, 임미진(언론노조 서울경인 지역인쇄지부)/ 임재경(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 이상윤, 전수경, 스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전현정(성동건강복지센터)/ 백종선(성동실업자지원센터)/ 정태효(성수삼일교회)/ 손정순, 김민정(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강문대(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

‘못 다한 이야기’ 대담 진행

임미진 최창준 전수경

실태조사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오주영 전수경 스키 아키라 이상윤 윤석진 이서치경 류순희 소연 류장환 김원규 강문대 박명혜 최창준 김성기 임영기 박영천 김정이 한주태희 정태효 김미영 박규상 임재경 전현정 박미경 백종선 박옥경 이영애 문종찬 김미란 임미진 민경화 이진희 송은아 이윤경 신문옥 손정순 김민정 송선미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 민주노동당 서울성동구지역위원회, 노동건강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성동실업자지원센터, 성수삼일교회 내일의 집,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금속노조 서울동부지회

도움 주신 분들

최영진, 하늘기획(동영상기획) / 송선미(유인물 디자인)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성진분회(보고서 편집)/ 김수정(시화정책연구소)

부 록

실태조사 요약본 189

설문지(영사사업장 노동자, 사업주, 실직자) 229

성수동 중소 영세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요약본)

구분	성수동	성수동 외	합계
조사 대상 사업장 수	10	10	20
조사 대상 근로자 수	100	100	200

이 발표문은 성수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본으로서 설문 결과의 전문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노동자 노동복지 공동실태조사단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성수동 지역내 노동자 및 영세 사업주 및 실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
- 조사일시 : '05. 6월~7월
- 조사방법 : 조사단을 구성, 성수동 지역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자제식을 원칙으로 하였고,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분석.
- 총 수거 부수

구분	노동자용	사업주용	실직 노동자용	합계
수거 부수	478	72	58	608

2. 영세 노동자용 설문 분석 결과

(1) 설문 응답자 현황 및 가구 개황

- 설문 응답자의 다수는 고졸, 30대 후반의 전체 경력 10년 미만의 서울 거주 남성 노동자로서,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에서 정규직 고용형태가 7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의 고용상의 지위는 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특성상, 실질적으로는 전형적인 비정규직의 고용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전반적으로 3-4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체 응답자의 51.6%는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 <가구원 수와 가구 소득 수준>

구분	총가구원수					전체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100만원 미만	9 (17.6%)	7 (14.9%)	23 (19.2%)	6 (3.7%)	7 (8.8%)	52 (11.3%)
200만원 미만	33 (64.7%)	22 (46.8%)	57 (47.5%)	50 (30.5%)	24 (30.0%)	186 (40.3%)
300만원 미만	6 (11.8%)	9 (19.1%)	29 (24.2%)	69 (42.1%)	24 (30.0%)	137 (29.7%)
400만원 미만	2 (3.9%)	9 (19.1%)	6 (5.0%)	23 (14.0%)	12 (15.0%)	52 (11.3%)
500만원 미만	1 (2.0%)	0 (0%)	4 (3.3%)	7 (4.3%)	7 (8.8%)	19 (4.1%)
500만원 이상	0 (0%)	0 (0%)	1 (8%)	9 (5.5%)	6 (7.5%)	16 (3.5%)
전체	51 (100.0%)	47 (100.0%)	120 (100.0%)	164 (100.0%)	80 (100.0%)	462 (100.0%)

- 이를 도시 가계조사 자료와 비교해 보면, '05년 2/4분기 전체 도시가구의 월 평균 경상소득 금액이 약 300만원(299만 9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설문 응답자의 81.3%는(위 [표 1] 참조) 전국 평균 금액 이하의 가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으로서, 가구 소득 수준이 전국 평균치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는 상황.

[표 2] <전국 도시가계 경상소득 - '05. 2/4분기>

구분	가구원수					전체 평균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월 평균 소득금액	-	235만원	294만원	327만원	337만원	299만원

* 출처 : 통계청 KOSIS.

[표 3] <설문 응답자의 현황>

구분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연령	30세미만	78	16.3	기업 규모	1인	21	4.4
	35세미만	92	19.2		5인 미만	111	23.2
	40세미만	84	17.6		5인 - 10인 미만	116	24.3
	45세미만	82	17.2		10인 - 20인 미만	125	26.2
	50세미만	69	14.4		20인 - 50인 미만	90	18.8
	50세이상	68	14.2		합계	463	96.9
	합계	473	99.0		무응답	15	3.1
전체 경력	무응답	5	1.0	거주 지역	서울 성동구	173	36.2
	2년미만	66	13.8		서울 기타 지역	227	47.5
	5년미만	89	18.6		경기,인천	69	14.4
	10년미만	86	18.0		기타	2	0.4
	15년미만	69	14.4		합계	471	98.5
	20년미만	42	8.8		무응답	7	1.5
	20년이상	82	17.2		업종	금속	58
합계	434	90.8	인쇄,출판	132		27.6	
무응답	44	9.2	의류제조	7		1.5	
성별	남성	304	63.6	제화		45	9.4
	여성	171	35.8	전기가스수도		2	0.4
	합계	475	99.4	건설		10	2.1
	무응답	3	.6	숙박및 음식		18	3.8
	학력	중졸이하	76	15.9	도,소매	30	6.3
고졸		248	51.9	럭셔리서비스	1	0.2	
전문대졸		57	11.9	운수	4	0.8	

1) 경상소득 금액 = 근로소득+사업소득+부업소득+재산소득+공·사. 이전소득

고용 형태	대학이상	78	16.3	통신	1	2
	합계	459	96.0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17	3.6
	무응답	19	4.0	가사서비스	2	4
	자영업	14	2.9	개인서비스	1	2
	정규직	358	74.9	정비	3	6
	임시직	50	10.5	시설관리	5	1.0
	시간제	18	3.8	기타 제조업	77	16.1
	파견직	4	8	복지및 사회서비스	10	2.1
	소사장제	21	4.4	기타	10	2.1
	무급종사	4	8	주유,가스충전	45	9.4
합계	469	98.1				
무응답	9	1.9				

(2)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

- 임금액(총액 기준)은 평균은 142만원, 전체 응답자의 69.9%는 월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 임금 수준 및 임금 지급방식 >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임금 수준	70만원미만		47	9.8	임금 체계	연봉제	74	15.5	
	100만원미만		50	10.5		월급제	334	69.9	
	130만원미만		103	21.5		주급제	2	4	
	160만원미만		103	21.5		일급제	28	5.9	
	190만원미만		67	14.0		실적제	35	7.3	
	190만원이상		98	20.5		합계	473	99.0	
	합계		468	97.9		무응답	5	1.0	
	응답		10	2.1		합계	478	100.0	
합계		478	100.0	전체 평균 임금 금액 : 142만원					

- 이같은 임금 수준은 2004년, 전체 임금노동자(5인 이상)의 년평균 월 임금총액 225만원의 63% 수준에 불과²⁾한 것으로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성수동 지역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매월노동통계』, 2004년 년평균 자료 (<http://laborstat.molab.go.kr/index.html>).

- 전체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7 시간이며, 5인 이상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면 52.4시간.

[표 5] <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 (단위: 시간, 명)

구분	평균시간	응답자수	구분	평균시간	응답자수		
						구분	평균시간
업종	금속	47.3	57	기업 규모	1인	43.4	20
	인쇄,출판	53.2	130		5인미만	51.6	110
	의류제조	46.0	7		10인미만	52.2	112
	제화	62.5	43		20인미만	52.3	125
	전기가스수도	48.0	2		50인미만	53.4	89
	건설	54.4	10	합계	51.9	456	
	숙박및 음식	55.2	18	고용 형태	자영업	47.7	13
	도,소매	51.0	30		정규직	52.5	354
	퀵서비스	58.0	1		임시직	49.7	50
	운수	71.5	4		시간제	40.3	18
	통신	70.0	1		파견직	50.0	4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47.8	17		소사장제	60.3	19
	가사서비스	35.0	2		무급종사	42.5	4
	개인서비스	66.0	1		합계	51.8	462
	정비	51.0	3		전체 주당 평균 근로시간 : 51.7시간		
	시설관리	54.0	4		5인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 52.4시간		
	기타제조업	49.8	77				
	복지및 사회서비스	42.7	10				
	기타	46.9	10				
	주유,가스충전	46.9	43				
합계	51.6	470					

- 가사서비스 부문이 근로시간이 가장 짧고, 운수 업종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로는 무급종사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이같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순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시 206.8(=51.7 X 4) 시간으로, 2004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5인 이상) 월 평균 근로시간 197.2시간 보다 약 9.6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남.³⁾

- 응답자의 46.2%는 현 직장에 '소개 및 추천'을 통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0.8%인 147명은 최근 1년 이내에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이직 사유는 '사업장 폐업(17.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장시간 노동, 작업 환경 열악 등의 근로조건과 저임금이 주된 이직사유인 것으로 나타남.

3) 『매월노동통계』, 2004년 연간 자료 (<http://laborstat.molab.go.kr/index.html>).

[표 6]

< 이직 사유 >

구분	이직 사유		이직 사유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이직 사유	사업장 폐업	25	17.0	장래성 부재	15	10.2
	정리해고/감원 등	14	9.5	저임금	16	10.9
	사업주의 자의	7	4.8	집안사정	9	6.1
	계약기간 만료	2	1.4	개인상의 이유	7	4.8
	적성/능력 불일치	10	6.8	기타	17	11.6
	열악한 근로조건	16	10.9	합계	147	100.0
	고용불안	9	6.1			

- 이들 이직경험자의 현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직 前의 고용형태가 현 고용형태와 긴밀히 연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7]

< 이직전 고용형태와 현 고용형태 >

(단위 : 명, %)

구분	현 고용형태								
	자영업	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파견직	소사장제	무급종사	전체	
이직전 고용 형태	자영업	1 (20.0)	2 (40.0)	1 (20.0)	0 (0.0)	0 (0.0)	0 (0.0)	1 (20.0)	5 (100.0)
	정규직	3 (3.6)	75 (89.3)	4 (4.8)	2 (2.4)	0 (0.0)	0 (0.0)	0 (0.0)	84 (100.0)
	임시직	0 (0.0)	6 (23.1)	20 (76.9)	0 (0.0)	0 (0.0)	0 (0.0)	0 (0.0)	26 (100.0)
	시간제	0 (0.0)	2 (40.0)	1 (20.0)	2 (40.0)	0 (0.0)	0 (0.0)	0 (0.0)	5 (100.0)
	파견	0 (0.0)	2 (50.0)	0 (0.0)	0 (0.0)	2 (50.0)	0 (0.0)	0 (0.0)	4 (100.0)
	소사장제	0 (0.0)	5 (29.4)	0 (0.0)	0 (0.0)	1 (5.9)	11 (64.7)	0 (0.0)	17 (100.0)
	무급종사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고용주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전체	4 (2.8)	93 (65.0)	27 (18.9)	4 (2.8)	3 (2.1)	11 (7.7)	1 (0.7)	143 (100.0)

(3) 법정 및 기업복지 현황

○ 사회보험 가입율은 6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 율 또한 50%를 넘게 나타나고 있음.

[표 8]

< 사회보험 가입 현황 >

(단위 : 명,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가입	직장	249	78.8	직장	242	72.9	미가입	135	28.2		
	지역	33	10.4	지역	53	16.0	모름	24	5.0		
	무응답	34	10.8	무응답	37	11.1	합계	468	97.9		
	합계	316	66.1	합계	332	69.5	합계	464	97.1		
미가입	127	26.6	미가입	105	22.0	무응답	10	2.1	무응답	14	2.9
합계	443	92.7	합계	437	91.4						
무응답	35	7.3	무응답	41	8.6						

-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이유를 파악해 보면, '사업주의 요구'가 2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잘 몰라서' 미가입했다는 이유가 15.7%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 9]

< 사회보험 미가입 사유 >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미가입 사유	사업주 요구	47	24.6
	금액 부담	29	15.2
	개인사정	11	5.8
	사회보험 불신	11	5.8
	잘 몰라서	30	15.7
	기타	45	23.6
	합계	173	90.6
무응답	18	9.4	
합계	191	100.0	

○ 법정 및 기업 복지 중 기초적인 퇴직금, 식대보조, 하계휴가, 상여금을 제외하고는 수혜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표 10]

< 법정 및 기업복지 수혜율 >

항목	수혜가능	수혜불가	모름	항목	수혜가능	수혜불가	모름
퇴직금	316 (66.1)	127 (26.6)	29 (6.1)	식비보조	341 (71.3)	116 (24.3)	9 (1.9)
월차	114 (23.8)	324 (67.8)	26 (5.4)	하계휴가	378 (79.1)	74 (15.5)	15 (3.1)
연차	86 (18.0)	335 (70.1)	38 (7.9)	상여금	268 (56.1)	162 (33.9)	34 (7.1)
주휴	116 (24.3)	296 (61.9)	40 (8.4)	병가	129 (27.0)	252 (52.7)	72 (15.1)
시간외	209 (43.7)	241 (50.4)	11 (2.3)	생휴	24 (4.0)	121 (70.8)	15 (8.8)
휴업수당	66 (13.8)	311 (65.1)	73 (15.3)	출산휴가	24 (4.0)	105 (61.4)	31 (18.1)
육아휴직	22 (4.6)	292 (61.1)	104 (21.8)				

- 특히, 여성의 경우 생후조차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무려 70.8%에 이르고 있음.

- 이처럼 기본적인 노동법상의 복지조차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영세 노동자들은 영세사업체의 특성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그 사유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 법정 복지 미수혜 사유 >

구분	응답자수	비중(%)	
미수혜 사유	사업주 요구	69	14.4
	영세사업장 관행	186	38.9
	경영애로	61	12.8
	대체인력 부재	44	9.2
	사업주 무지	25	5.2
	기타	50	10.5
	합계	435	91.0
	무응답	43	9.0
합계	478	100	

- 그에 따라 영세사업장 복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1/2이 중앙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 중소기업 사업장 복지 문제 해결 방안 >

구분	응답자수	비중(%)	
해결 방안	중앙/지자체의 지원	224	46.9
	사업주에 대한 감독강화	75	15.7
	사업주 및 노동자의 인식 변화	101	21.1
	영세사업체의 불가피성	59	12.3
	기타	12	2.5
	합계	471	98.5
	무응답	7	1.5
합계	478	100.0	

(4) 노동조합

○ 불이익시 주요 상담처로는 노동부 등의 감독당국을 이용하겠다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노동조합을 통해 불이익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비중 또한 25.3%에 이룸

[표 13] < 불이익시 도움 요청 기관 >

구분	응답자수	비중 (%)	
주요 상담처	회사관리자	56	11.7
	직장 동료	56	11.7
	노동조합	121	25.3
	시민단체	22	4.6
	노동부	173	36.2
	노무사 및 변호사	16	3.3
	기타	27	5.6
	합계	471	98.5
	무응답	7	1.5
합계	478	100.0	

○ 노조 인지 및 가입의사 여부에 대해, 이미 가입한 응답자 비중은 6.5%인 반면, 가입의사가 없거나 관심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54.5%에 달하고 있어, 낮은 가입율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노조에 대해 비우호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 또한 36.6%에 달하고 있음.

[표 14] < 노동조합 가입 의사 및 미가입 사유 >

구분	응답자수	비중 (%)	구분	응답자수	비중(%)		
노조 가입 의사	없다	165	34.5	미가입 사유	가입자격 없음	17	10.3
	있다	175	36.6		노조에 대한 불만	19	11.5
	기 가입	31	6.5		주위의 만류	7	4.2
	관심 없음	98	20.5		사용자의 만류(간섭)	10	6.1
	합계	469	98.1		필요성 못느낌	86	52.1
	무응답	9	1.9		기타	21	12.7
합계	478	100.0	소계	160	97.0		
			무응답	5	3.0		
			합계	165	100.0		

- 가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165명을 대상으로 미가입 사유를 파악해 보면, '필요성 못느낌'이 절반을 넘는 52.1%로 나타남.

(5)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

○ 설문응답자의 71.5%가 사업장, 또는 주거지가 성수동 소재임에도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안에 대한 인지도는 2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5] < 사업장, 주거지 성수동 소재 여부 >

구분		응답자수	비중 (%)	
성수동 소재 여부	예	342	71.5	
	성수동 지역개발 인지여부	예	70	20.5
		아니오	269	78.7
		무응답	3	.9
	아니오	128	26.8	
	합계	470	98.3	
무응답	8	1.7		
합계	478	100.0		

- 성수동 지역개발에 대한 영세 노동자들의 의견은 '잘 모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반대 및 영세사업체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 16] < 성수동 지역개발에 대한 의견 >

구분		응답자수	비중(%)
성수동 개발에 대한 의견	영세사업장 와해	39	11.4
	반대 및 영세사업장 지원	78	22.8
	스스로 자구책 마련	26	7.6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60	17.5
	잘 모름	125	36.5
	기타	6	1.8
	합계	334	97.7
	무응답	8	2.3
합계	342	100.0	

- 성수동 지역 뉴산업단지 개발안 대책에 대한 영세 노동자들의 의견 또한, 곧 '반대와 영세사업체 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음.

[표 17] < 성수동 지역개발에 대한 대책 >

구분		응답자수	비중(%)
대책	유치계획에 대한 전면 반대	23	6.7
	영세사업체 지원 대책 마련	207	60.5
	이전/폐업/업종전환 고민	24	7.0
	관심 없음	63	18.4
	기타	15	4.4
	합계	332	97.1
무응답	10	2.9	
합계	342	100.0	

(6) 노동안전 및 건강

○ 11가지 유해 요인별 노출 여부 및 심각도

- 소음, 반복작업, 분진 등의 요인에 대해 '노출되어 있다'는 응답자가 50%를 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유해, 위험요인 항목별 노출 심각도에 있어서는 분진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2.0을 넘어서고 있음. (심각도는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낮을 수록 양호함을 의미)

[표 18] < 유해요인별 노출 여부 및 심각도 >

유해, 위험요인 항목	노출 여부		
	있음	심각도	없음
유기용제	61 (33.7%)	2.27	276 (57.7%)
화학물질	65 (13.6%)	2.16	373 (78.0%)
고(저)온	138 (28.9%)	2.12	301 (63.0%)
유해광선	57 (11.9%)	2.29	375 (78.5%)
진동	146 (30.5%)	2.19	290 (60.7%)
소음	278 (58.2%)	2.11	171 (35.8%)
중량물	172 (36.0%)	2.25	263 (55.0%)
반복작업	302 (63.2%)	2.15	139 (29.1%)
불편한 자세	177 (37.0%)	1.98	260 (54.4%)
위험한 기계	166 (34.7%)	2.08	273 (57.1%)
분진	291 (60.9%)	1.93	152 (31.8%)

* 심각도는 '매우 심각' 3점, '심각한편' 2점, '별로 심각하지 않음' 1점으로 계산.

- 이처럼 중소기업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해 영세노동자들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에 기인한 '비용' 문제와 더불어 사업주의 의지 부족을 들고 있음.

○ 2000년 이후 업무상 질병·사고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19.2%인 92명이 '있다'고 응답. 이 기간 동안 사고,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영세노동자의 평균 횟수는 1.86회인 것으로 나타남.

[표 19] < 2000년 이후 업무상 질병, 사고 여부 >

구분		응답자수	비중 (%)
질병, 사고 여부	있음	92	19.2
		횟수	평균 1.86회
	없음	377	78.9
	합계	469	98.1
	무응답	9	1.9
합계	478	100.0	

- 업종별로는 금속, 의류 등의 제조업과 시설관리 업종에서, 성별로는 남성 노동자가, 근속과 연령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근속/중·고령 노동자의 질병·사고 경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있다'고 응답한 92명중, 산재보험 미신청자가 75%(69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신청 사유로는 '가벼운 질병(사고)'가 높게 나오는 가운데, '잘 모름', '사업주 강요' 등도 산재보험 미신청 주요 이유인 것으로 드러남.

[표 20] < 산재 신청 여부 및 미신청 사유 >

산재 신청 여부				산재 미신청 사유			
구 분		응답자수	비중 (%)	구 분		응답자수	비중 (%)
신청 여부	있음 (평균 1.3회)	21	22.8	사유	사업주 강요	7	10.1
	없음 (평균 1.6회)	69	75.0		해고 위험	4	5.8
	합계	90	97.8		회사 보상	8	11.6
	무응답	2	2.2		가벼운 사고(질병)	25	36.2
합계		92	100.0		귀찮아서	1	1.4
					잘 모름	12	17.4
					기타	6	8.7
					합계	63	91.3
					무응답	6	8.7

(7) 노동 및 생활 복지 서비스 부문.

1) 노동복지 서비스

- 현재 영세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곤란은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남. 2순위에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이, 3순위에서는 일자리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 < 현재 가장 어려운 점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애로 사항	경제적 어려움	234	49.0	80	16.7	42	8.8
	자녀 양육, 교육	66	13.8	94	19.7	43	9.0
	질병 치료, 간병	14	2.9	20	4.2	26	5.4
	부모 부양	7	1.5	32	6.7	20	4.2
	주거문제	37	7.7	75	15.7	43	9.0
	일자리 불안	52	10.9	74	15.5	108	22.6
	문화활동 부족	33	6.9	52	10.9	107	22.4
	가족 문제(갈등)	11	2.3	9	1.9	14	2.9
	기타	6	1.3	4	.8	6	1.3
	결혼	6	1.3	7	1.5	14	2.9
	합계	466	97.5	447	93.5	423	88.5
	무응답	12	2.5	31	6.5	55	11.5
합계	478	100.0	478	100.0	478	100.0	

- 영세노동자의 85.1%는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영세 노동자의 경우 주 이용 기관은 고용안정 센터를 통한 1~2회 정도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 <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 현황 >

직업훈련 서비스 수혜 여부				직훈 서비스 이용 기관				직훈 서비스 이용 횟수			
구 분		응답자수	비중 (%)	구 분		응답자수	비중 (%)	구 분		응답자수	비중 (%)
수혜 여부	있음	64	13.4	주 이용 기관	고용안정센터	29	45.3	이용 횟수	1-2회	41	64.1
	없음	407	85.1		지역사회복지관	6	9.4		3-4회	5	7.8
	합계	471	98.5		구청, 동사무소	4	6.3		5-6회	1	1.6
	무응답	7	1.5		노동조합	1	1.6		7회 이상	4	6.3
합계	478	100.0	지역 시민단체		4	6.3	합계		51	79.7	
					기타	15	23.4	무응답	13	20.3	
					합계	59	92.2				
					무응답	5	7.8				

* 이용기관 및 이용횟수 등은 이용경험이 있는("있음" 응답자)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이하 동일

- 노동상담 서비스의 경우, 18.6%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 이용기관은 고용안정센터, 이용 횟수는 대체로 1-2회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 노동상담 서비스 이용 현황 >

노동상담 서비스 이용 여부			주 이용 기관			이용 횟수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이용 여부	있음	89	18.6	이용 기관	고용안정센터	48	53.9	이용 횟수	1-2회	67	75.3
	없음	382	79.9		지역사회복지관	2	2.2		3-4회	8	9.0
	합계	471	98.5		노동조합	28	31.5		5-6회	1	1.1
	무응답	7	1.5		지역 시민단체	4	4.5		7회이상	6	6.7
합계			478	100.0	기타		4	4.5	합계	82	92.1
					합계		86	96.6	무응답	7	7.9
					무응답		3	3.4			

○ 취업알선 서비스의 경우 16.1%인 77명이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로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남.

[표 24]

< 취업알선 서비스 이용 현황 >

취업알선 서비스 이용 여부			주 이용 기관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이용 유무	있음	77	16.1	이용 기관	고용안정센터	39	50.6	
	없음	395	82.6		지역사회복지관	3	3.9	
	합계	472	98.7		구청,동사무소	10	13.0	
	무응답	6	1.3		노동조합	6	7.8	
합계			478	100.0	지역 시민단체		5	6.5
					기타		13	16.9
					합계		76	98.7
					무응답		1	1.3

○ 취미, 여가활동 서비스의 경우 노동관련 복지 서비스 부문중 이용율이 가장 낮은 13.0%로 나타났으며, 주 이용기관은 관련 지자체 기관이나 지역 및 시민단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25]

< 취미, 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여부 >

구분			구분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이용 여부	있음	62	13.0	주 이용기관	지역 복지관	9	14.5	
	없음	410	85.8		구청,동사무소	15	24.2	
	합계	472	98.7		노동조합	5	8.1	
	무응답	6	1.3		지역 시민단체	13	21.0	
합계			478	100.0	기타		20	32.3
					합계		62	100.0

○ 노동 관련 복지 서비스의 미이용 사유와 관련해서는 '정보 부재'와 '필요성 없음'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미·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표 26]

< 노동 관련 복지 서비스 미이용 사유 >

구분	직업훈련 서비스		노동상담 서비스		취업알선 서비스		여가,취미활동 서비스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미이용 사유	적당한 기관 부재	34	8.4	24	6.3	35	8.9	48	11.7
	시간이 없어서	58	14.3	18	4.7	10	2.5	129	31.5
	돈이 없어서	3	.7	2	.5	6	1.5	40	9.8
	정보 부재	165	40.5	146	38.2	139	35.2	127	31.0
	필요성 없음	126	31.0	162	42.4	182	46.1	51	12.4
	기타	15	3.7	24	6.3	17	4.3	7	1.7
	합계	401	98.5	376	98.4	389	98.5	402	98.0
	무응답	6	1.5	6	1.6	6	1.5	8	2.0
합계	407	100.0	382	100.0	395	100.0	410	100.0	

○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관련 복지 서비스 부문은 여가 및 취미활동이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 >

구분	응답자수	비중(%)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	56	11.7
	노동상담	64	13.4
	취업알선	114	23.8
	여가,취미활동	204	42.7
	기타	26	5.4
	합계	464	97.1
무응답	14	2.9	
합계	478	100.0	

2) 가정 및 생활복지 서비스

○ 방과후 이동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자는 5%인 24명이며, 주로 '매월 정기적'으로 동자치센터 또는 지역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이용 여부			이용 주기			주 이용기관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이용 여부	있음	24	5.0	이용 주기	매월 정기적	12	50.0	이용 기관	동 자치센터	6	25.0			
	없음	438	91.6		월 비정기	2	8.3		지역복지관	7	29.2			
	합계	462	96.7		필요시에	6	25.0		종교단체	2	8.3			
	무응답	16	3.3		기타	2	8.3		지역 시민단체	4	16.7			
합계			478	100.0	합계			22	91.7	기타			5	20.8
					무응답			2	8.3					

○ 보육 서비스 이용 경우,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4.6%인 22명에 불과. 주 이용기관은 구립 보육 시설인 것으로 나타남.

[표 28]

<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

보육 이용 여부			주 이용기관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이용 여부	있음	22	4.6	이용 기관	직장 보육 시설	3	13.6		
	없음	437	91.4		구립 시설	8	36.4		
	합계	459	96.0		지역 복지관	3	13.6		
	무응답	19	4.0		종교단체	1	4.5		
합계			478	100.0	가정 도우미			1	4.5
					기타			5	22.7
					합계			21	95.5
					무응답			1	4.5

○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의 경우, 복지 서비스 부문중 가장 낮은 1.9%의 이용율을 보임. 이용기관은 지자체 및 관련 복지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 >

이용 여부			주 이용기관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이용 여부	있음	9	1.9	이용 기관	구청,동사무소	3	33.3		
	없음	459	96.0		지역 복지관	4	44.4		
	합계	468	97.9		종교단체	1	11.1		
	무응답	10	2.1		합계	8	88.9		
합계			478	100.0	무응답			1	11.1

○ 가정 상담 서비스는 6.7%인 32명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 주된 이용기관은 종교 단체인 것으로 나타남.

[표 30]

< 가정 상담 서비스 이용 현황 >

이용 여부			주 이용기관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이용 여부	있음	32	6.7	주 이용 기관	구청,동사무소	4	12.5		
	없음	435	91.0		지역 복지관	4	12.5		
	합계	467	97.7		종교단체	8	25.0		
	무응답	11	2.3		지역 시민단체	7	21.9		
합계			478	100.0	기타			8	25.0
					합계			31	96.9
					무응답			1	3.1

○ 생활 관련 서비스의 미이용 사유로는 '적정 기관 부재' 및 '정보 부재' 등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

< 방과후 아동 복지 및 보육 서비스 미이용 사유 >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 미이용 사유			보육 서비스 미이용 사유		
사유	응답자 수	비중(%)	사유	응답자 수	비중(%)
적당한 기관 부재	22	25.3	적당한 기관 부재	14	17.5
사실 학원 이용	21	24.1	대기자 많음	8	10.0
정보 부재	20	23.0	퇴근 시간 불일치	7	8.8
돈이 없어서	7	8.0	가족이 들봄	7	8.8
해당 없음	5	5.7	정보 부재	15	18.8
기타	3	3.4	돈이 없어서	3	3.8
소계	78	89.7	해당 없음	14	17.5
무응답	9	10.3	기타	3	3.8
합계	87	100.0	소계	71	88.8
			무응답	9	11.3
			합계	80	100.0

4) 가정, 생활서비스 부문의 미이용 사유 파악시에는 '미이용'했다고 응답한 영세노동자중 해당 서비스의 잠재적 수요자만을 대상으로 미이용 사유를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나 재가노인 서비스 미이용 사유 분석시에는 만 7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노동자, 또는 조·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그렇지 않고, '미이용'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미이용 사유를 파악하게 된다면 '해당사항 없음'이 가장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표 32]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및 가정상담 서비스 미이용 사유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미이용 사유			가정 상담 서비스 미이용 사유		
사유	응답자 수	비중(%)	사유	응답자 수	비중(%)
정보 부재	1	3.7	적당 기관 부재	36	7.5
돈이 없어서	2	7.4	시간이 없어서	14	2.9
해당없음	20	74.1	정보 부재	112	23.4
기타	1	3.7	돈이 없어서	5	1.0
소계	24	88.9	필요성 없음	255	53.3
무응답	3	11.1	기타	12	2.5
합계	27	100.0	소계	434	90.8
			무응답	44	9.2
			합계	478	100.0

3. 실직 노동자용 설문 분석 결과.

(1) 설문응답자 현황 및 가구 개황.

○ 설문 응답자는 주로 여성 - 기혼 - 배우자 생계 의존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앞서의 노동자용 설문 결과와 달리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참조)

○ 자녀 1 - 2명을 둔 4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구 소득이 2005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113만6천원)에도 모자라는 100만원에 미달하는 응답자가 5인, 5인 이상 가구중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응답자가 2인이나 될 정도로 실직 노동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표 33] < 가구원 수별 가구 소득 분포 >

구분	가구 소득수준	총가구원수					전체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100만원미만	4 (57.1%)	5 (62.5%)	5 (41.7%)	5 (27.8%)	2 (22.2%)	21 (38.9%)
	200만원미만	2 (28.6%)	2 (25.0%)	5 (41.7%)	4 (22.2%)	4 (44.4%)	17 (31.5%)
	300만원미만	1 (14.3%)	1 (12.5%)	2 (16.7%)	4 (22.2%)	3 (33.3%)	11 (20.4%)
	400만원미만	0 (0.0%)	0 (0.0%)	0 (0.0%)	1 (5.6%)	0 (0.0%)	1 (1.9%)
	500만원미만	0 (0.0%)	0 (0.0%)	0 (0.0%)	3 (16.7%)	0 (0.0%)	3 (5.6%)
	500만원이상	0 (0.0%)	0 (0.0%)	0 (0.0%)	1 (5.6%)	0 (0.0%)	1 (1.9%)
	전체	7 (100.0%)	8 (100.0%)	12 (100.0%)	18 (100.0%)	9 (100.0%)	54 (100.0%)

[표 34]

< 설문 응답자 및 가구 특성 >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배우자의 경제활동	자영업	9	15.5	소득 수준	100만원미만	21	36.2	
	정규직	11	19.0		200만원미만	17	29.3	
	임시직	2	3.4		300만원미만	11	19.0	
	파견직	1	1.7		400만원미만	1	1.7	
	소사장제	1	1.7		500만원미만	3	5.2	
	가내부업	1	1.7		500만원이상	1	1.7	
	비경제활동	5	8.6		합계	54	93.1	
	해당사항 없음	15	25.9		무응답	4	6.9	
	전업주부	3	5.2		주 생계 유지	본인	15	25.9
	합계	48	82.8			배우자	26	44.8
무응답	10	17.2	부모	7		12.1		
지역	서울 성동구	35	60.3	자녀		5	8.6	
	서울 기타지역	21	36.2	형제,자매		1	1.7	
	경기,인천	1	1.7	기타		1	1.7	
	합계	57	98.3	합계		55	94.8	
	무응답	1	1.7	무응답		3	5.2	
주거	부모	9	15.5	혼인		미혼	16	27.6
	자가	17	29.3			기혼	41	70.7
	전세	12	20.7		합계	57	98.3	
	월세	12	20.7	성별	무응답	1	1.7	
	무상	5	8.6		남성	26	44.8	
	합계	55	94.8		여성	31	53.4	
	무응답	3	5.2		합계	57	98.3	
학력	중졸이하	13	22.4		가구원 수	무응답	1	1.7
	고졸	32	55.2			독신가구	9	15.5
	전문대졸	6	10.3			2인 가구	8	13.8
	대학이상	4	6.9	3-4인가구		30	51.7	
	합계	55	94.8	5인이상 가구		9	15.5	
	무응답	3	5.2	소계		56	96.6	
			무응답	2	3.4			

1) 취업 및 구직 활동

○ 지난 1개월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29.3%가 '그렇다'고 응답.

-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17명중 16명은 단순 일용직 등의 임금 노동자로 일자리를 구했었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 일정 액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

< 지난 1개월간 일자리 취업 현황 >

일자리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소득금액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있음	17	29.3	일용직 임금노동자	6	35.3	월 소득있음	14	82.4
						평균금액	121만원	
없음	41	70.7	임금노동자 (일용직제외)	10	58.8	무임금 노동	1	5.9
합계	58	100.0	무급가족종사자	1	5.9	적자(자영업)	1	5.9
			합계	17	100.0	합계	16	94.1
						무응답	1	5.9

○ 지난 1개월간의 구직 활동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3.4%인 31명이 구직 활동을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

[표 36]

<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활동 내용 >

구분	구분	응답자수	비중(%)	
				있음
구직활동 여부	구직 활동 내용	친구, 친지	13	41.9
		학교, 학원, 스승	5	16.1
		공공직업안내소	7	22.6
		유료 민간직업소개소	3	9.7
		무료 민간직업소개소	4	12.9
		스스로 구직활동	12	38.7
		취업 박람회	4	12.9
		인터넷 구인광고	10	32.3
		신문, 벽보, TV 광고	18	58.1
		인력시장	4	12.9
		민간용역업체(파견)	3	9.7
평균 구직 기간		11개월		
없음		26	44.8	
합계		57	98.3	
무응답		1	1.7	
합계		58	100.0	

- 주된 구직활동 내용은 친구, 친지 등을 통한 구직 활동과 더불어, 실직 노동자 스스로의 구직 활동, 인터넷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구직 기간은 11개월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의사 여부에 관해서는 설문 응답자의 1/2 가량이 무응답을 한 가운데, 34.5%인 20명이 적당한 일자리나 직장이 있다면, 바로 취업을 하겠다고 응답.

[표 37]

< 취업 의사 여부 >

구분	구분	응답자수	비중(%)
취업 여부	아니오	8	13.8
		미취업 사유	
	양육, 부양	3	37.5
	고령 은퇴	1	12.5
	건강 문제	2	25.0
	무응답	2	25.0
합계		28	48.3
무응답		30	51.7
합계		58	100.0

- 미취업 의사를 밝힌 8명중 양육·부양문제가 3명, 고령 및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미취업이 3명임.

2) 실직전 일과 직장

○ 주된 실직 사유는 집안 사정, 학업, 건강등의 개인적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사업장 폐업과 정리해고 등, 사업체의 경영상의 이유 또한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

< 주된 실직 사유 >

구분	구분	응답자수	비중(%)
실직 사유	사업장 이전, 폐업	9	15.5
	정리해고, 감원	8	13.8
	근로조건 열악	4	6.9
	저임금	4	6.9
	고용 불안	1	1.7
	장래성 부재	4	6.9
	계약기간 만료	2	3.4
	사업주와의 채용 조건	1	1.7
	집안 사정	12	20.7
	학업, 건강등 개인사유	9	15.5
	기타	3	5.2
	합계	57	98.3
무응답	1	1.7	
합계	58	100.0	

- 이외에도 저임금과 근로조건 열악 등, 사업체의 영세성에 기인한 이직사유 또한 13.8%에 이르고 있음.

○ 실직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의 근속년수는 4년 8개월, 전체 관련업무 근속년수는 9년 4개월이며, 기능원 및 기계 조작 조립원, 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 < 실직전 업종/직무/고용형태/기업규모 현황 >

업종	구분	응답자수	비중(%)	직무	구분	응답자수	비중(%)
금속	3	5.2	전문가	1	1.7		
인쇄,출판	5	8.6	기술공,준전문가	2	3.4		
의류제조	6	10.3	사무종사자	10	17.2		
제화	2	3.4	서비스종사자	8	13.8		
건설	2	3.4	판매종사자	2	3.4		
숙박및 음식	7	12.1	기능원	8	13.8		
도,소매	8	13.8	장치,기계조작,조립	10	17.2		
퀵서비스	1	1.7	단순노무종사자	7	12.1		
운수	2	3.4	합계	54	93.1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3	5.2	자영업	7	12.1		
개인서비스	1	1.7	정규직	30	51.7		
정비	2	3.4	임시직	10	17.2		
오락,문화,운동	1	1.7	시간제	5	8.6		
시설관리	1	1.7	파견직	1	1.7		
기타제조업	4	6.9	소사장제	1	1.7		
복지및 사회서비스	1	1.7	무급종사	1	1.7		
기타	8	13.8	합계	55	94.8		
합계	58	100.0	1인	7	12.1		
실직전 사업장 근무년수	4년 8개월		5인 미만	10	17.2		
전체 관련업무 근속년수	9년 4개월		10인 미만	11	19.0		
평균 실직 기간	3년 2개월		20인 미만	6	10.3		
			50인 미만	15	25.9		
			합계	49	84.5		

- 평균 실직 기간은 3년 2개월이며, 실직 기간중의 생계 유지는 배우자의 소득과 가족 및 친지의 도움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일자리는 기업 규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직무와 관련해서는 기능원 및 기계 조립 등의 업무를, 고용형태에서

는 정규직 - 전일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업종은 다양하게 분포.

[표 40] < 취업 희망 업종/직무/규모/고용형태 >

업종	구분	응답자수	비중(%)	직무	구분	응답자수	비중(%)
인쇄, 출판	4	6.9	전문가	1	1.7		
의류, 제조	5	8.6	기술공	4	6.9		
제화	2	3.4	사무 종사자	5	8.6		
건설	2	3.4	서비스 종사자	3	5.2		
숙박 및 음식	5	8.6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9	15.5		
도, 소매	3	5.2	장치,기계 조립	8	13.8		
운수	1	1.7	단순 노무	7	12.1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3	5.2	합계	47	81.0		
개인 서비스	2	3.4	무응답	11	19.0		
자동차 정비	2	3.4	자영업	12	20.7		
오락, 문화및 운동관련	2	3.4	정규직	32	55.2		
건물 청소	4	6.9	임시직	3	5.2		
기타 제조업	2	3.4	시간제	4	6.9		
복지및 사회서비스	3	5.2	파견직	1	1.7		
기타	13	22.4	무급종사자	1	1.7		
합계	58	100.0	합계	53	91.4		
1인	3	5.2	무응답	5	8.6		
5인 미만	19	32.8	전일제 근무	40	69.0		
10인 미만	10	17.2	시간제 근무	12	20.7		
20인 미만	10	17.2	합계	52	89.7		
50인 미만	9	15.5	무응답	7	10.3		
합계	51	87.9					
무응답	7	12.1					

○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과 생활안정 대책중 중요한 것으로는 각각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사회보험의 확대를 꼽고 있음.

[표 41]

< 고용안정/생활안정 대책중 중요한 것 >

고용안정 대책			생활안정 대책		
항목	응답자수	비중(%)	항목	응답자수	비중(%)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12	20.7	공공 근로사업	7	12.1
공공직업소개, 취업정보망 확대	10	17.2	실업급여 대상 확대 및 수준 제고	8	13.8
신규 일자리 창출노력	17	29.3	기존 의보, 연금 확대	14	24.1
기업 고용안정 지원	8	13.8	기초생활보장 확대	8	13.8
개인사업자금 용자	6	10.3	생계비 대부 확대	4	6.9
기타	4	6.9	아동, 장애인, 노인 관련 서비스 확충	6	10.3
합계	57	98.3	창업자금용자	6	10.3
무응답	1	1.7	노숙자 보호	3	5.2
합계	58	100.0	상담사업지원	2	3.4
			합계	58	100.0

3) 노동 및 생활복지 서비스 부문

○ 현재 가족이 느끼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1순위에서는 경제적 곤란을, 2순위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꼽고 있음.

[표 42]

1 순위		2 순위		3 순위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경제적 곤란	34	58.6	경제적 곤란	7	12.1
양육 및 교육	7	12.1	양육 및 교육	11	19.0
간병 및 치료	6	10.3	간병 및 치료	6	10.3
주거 문제	2	3.4	부모 부양	4	6.9
일자리 문제	9	15.5	주거 문제	9	15.5
합계	58	100.0	일자리 문제	13	22.4
			가족 문제(갈등)	3	5.2
			기타	1	1.7
			결혼	3	5.2
			합계	57	98.3
			무응답	1	1.7

① 노동복지

○ 직업훈련 서비스는 전체 응답자중 15.5%인 9명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이

용횟수는 1-2회 정도이고 주 기관은 지역복지관 및 고용안정센터, 지자체 등으로 나타남.

[표 43]

<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 현황 >

이용 여부			이용 횟수			이용기관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있음	9	15.5	1-2회	5	55.6	고용안정센터	2	22.2
없음	49	84.5	3-4회	2	22.2	지역복지관	3	33.3
합계	58	100.0	5-6회	1	11.1	구청, 동사무소	2	22.2
			7회 이상	1	11.1	지역시민단체	1	11.1
			합계	9	100.0	기타	1	11.1
						합계	9	100.0

* 이용횟수/이용기관은 이용경험자("있음"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이하 동일.

○ 노동상담 서비스 이용은 24.1%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 상대적으로 3-4회 이용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 이용기관은 고용안정센터임.

[표 44]

< 노동상담 서비스 이용 여부 및 횟수 >

이용 여부			이용 횟수			주 이용기관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있음	14	24.1	1-2회	8	57.1	고용안정센터	8	57.1
없음	44	75.9	3-4회	3	21.4	노동조합	5	35.7
합계	58	100.0	7회 이상	2	14.3	지역시민단체	1	7.1
			합계	13	92.9	합계	14	100.0
			무응답	1	7.1			
			합계	14	100.0			

○ 취업 알선 서비스 또한 이용율은 19.0%. 주 이용기관은 고용안정센터인 것으로 나타남.

[표 45]

< 취업 알선 서비스 이용 현황 >

이용 여부			주 이용기관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있음	11	19.0	고용안정센터	8	72.7
없음	47	81.0	지역복지관	1	9.1
합계	58	100.0	구청, 동사무소	1	9.1
			노동조합	1	9.1
			합계	11	100.0

○ 취미, 여가활동 서비스 또한 이용율이 19%로서, 주 이용기관은 구청 및 동사무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 취미, 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현황 >

이용여부			주 이용기관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있음	11	19.0	지역복지관	3	27.3
없음	47	81.0	구청,동사무소	5	45.5
합계	58	100.0	지역시민단체	1	9.1
			기타	1	9.1
			합계	10	90.9
			무응답	1	9.1
			합계	11	100.0

○ 노동 관련 복지 서비스의 미이용 사유로는 모든 항목에서 '정보부재'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표 47] < 노동부문 복지 서비스 미이용 사유 >

구분	직업훈련 서비스		노동상담서비스		취업알선서비스		여가,취미 서비스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적당 기관 없음	5	10.2	3	6.8	3	6.4	4	8.5
시간 부족	7	14.3	2	4.5	1	2.1	8	17.0
돈이 없어서	2	4.1	1	2.3	-	-	8	17.0
정보 부재	23	46.9	18	40.9	23	48.9	20	42.6
필요성 부재	8	16.3	16	36.4	13	27.7	5	10.6
기타	4	8.2	3	6.8	6	12.8	2	4.3
소계	49	100.0	43	97.7	46	97.9	47	100.0
무응답	-	-	1	2.3	1	2.1	-	-
합계	49	100.0	44	100.0	47	100.0	47	100.0

○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서비스는 취업알선(43.1%) 서비스로서, 현재의 실직 상태에 따른 시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표 48] <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 서비스 >

구분	응답자수	비중(%)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	9	15.5
	노동상담	10	17.2
	취업알선	25	43.1
	여가,취미활동	11	19.0
	기타	2	3.4
	합계	57	98.3
무응답	1	1.7	
합계	58	100.0	

② 가정 및 생활복지 서비스

○ 가정 복지 분야로서 방과후 아동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5.2%만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

[표 49] <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 >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이용 여부	있음	3	5.2	이용횟수	매월 정기	3	100.0		
	없음	53	91.4	이용기관	지역복지관	2	66.7		
	합계	56	96.6		기타	1	33.3		
	무응답	2	3.4		합계	3	100.0		
	합계	58	100.0						

- 이용 횟수는 '매월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용 기관은 지역 복지관을 이용.

○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주 이용 기관은 구립 기관 및 지역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0] <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

이용 현황			주 이용 기관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있음	4	6.9	구립 어린이집	2	50.0
없음	52	89.7	지역복지관	2	50.0
합계	56	96.6	합계	4	100.0
무응답	2	3.4			
합계	58	100.0			

○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는 가정복지 부문중 이용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

구분	응답자수	비중(%)
유효	있음	1 1.7
	없음	56 96.6
	합계	57 98.3
무응답	1 1.7	
합계	58 100.0	

○ 가정 상담 서비스 또한 이용 또한 매우 낮은 수준. 총 3명이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용 기관은 종교 단체와 기타인 것으로 나타남.

[표 52] < 가정 상담 서비스 이용 현황 >

이용 여부			주 이용 기관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있음	3	5.2	종교단체	1	33.3
없음	54	93.1	기타	2	66.7
소계	57	98.3	합계	3	100.0
무응답	1	1.7			
합계	58	100.0			

- 기타에는 '방송 이용' 등을 기재.

○ 가정 및 생활 관련 서비스의 미이용 사유

[표 53] < 방과후 아동 복지 및 보육 서비스 미이용 사유 >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 미이용 사유			보육 서비스 미이용 사유		
사유	응답자 수	비중(%)	사유	응답자 수	비중(%)
적당한 기관 부재	5	9.4	적당한 기관 부재	6	11.5
사실 학원 이용	7	13.2	대기자 많음	2	3.8
정보 부재	2	3.8	퇴근 시간 불일치	2	3.8
돈이 없어서	2	3.8	가족이 돌봄	3	5.8
해당 없음	30	56.6	정보 부재	5	9.6
기타	6	11.3	돈이 없어서	-	-
소계	52	98.1	해당 없음	30	57.7
무응답	1	1.9	기타	4	7.7
합계	53	100.0	소계	52	100.0
			무응답	-	-
			합계	52	100.0

[표 54]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및 가정상담 서비스 미이용 사유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미이용 사유			가정 상담 서비스 미이용 사유		
사유	응답자 수	비중(%)	사유	응답자 수	비중(%)
적당 기관 부재	3	5.4	적당 기관 부재	2	3.7
가족,친지가 돌봄	5	8.9	시간이 없어서	2	3.7
정보 부재	1	1.8	정보 부재	13	24.1
돈이 없어서	2	3.6	돈이 없어서	-	-
해당사항 없음	42	75.0	필요성 없음	31	57.4
기타	3	5.4	기타	4	7.4
합계	56	100.0	소계	52	96.3
			무응답	2	3.7
			합계	54	100.0

○ 현재 가장 필요한 가정 복지 관련 서비스로는 방과후 교육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항목중 주관식 기재로는 간병인 지원 및 의료 등을 기입.

[표 55] < 필요로 하는 가정 복지 서비스 >

구분	응답자수	비중(%)
내용	초,중등 방과후 교육	13 22.4
	영,유아 보육	9 15.5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10 17.2
	가정,생활상담	12 20.7
	기타	13 22.4
	합계	57 98.3
무응답	1 1.7	
합계	58 100.0	

4. 영세 사업주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 응답자의 특성 및 가구 현황

- 설문 응답자는 인쇄·출판 업종/경력은 10 - 15년, 기업규모는 5인 미만이 다수를 차지.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

[표 56]

< 설문 응답자의 특성 >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경력 기간	3년 이하	7	9.7	업종	금속	14	19.4
	5년 이하	14	19.5		인쇄, 출판	22	30.6
	10년 이하	10	13.9		의류제조	1	1.4
	15년 이하	16	22.2		제화	2	2.8
	20년 이하	12	16.6		건설	3	4.2
	20년 이상	13	18.1		숙박 및 음식	6	8.3
합계	72	100.0	도, 소매		9	12.5	
성별	남성	56	77.8		운수	1	1.4
	여성	16	22.2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2	2.8
학력	중졸이하	14	19.4		개인서비스	3	4.2
	고졸	46	63.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1	1.4
	전문대졸	5	6.9		기타제조업	7	9.7
	대학이상	6	8.3		기타(업종표시안함)	1	1.4
	합계	71	98.6		0	28	38.9
	무응답	1	1.4	1인	15	20.8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5	20.8	5인미만	19	26.4	
	100-200만원 미만	28	38.9	10인미만	3	4.2	
	200-300만원 미만	14	19.4	20인미만	3	4.2	
	300-400만원 미만	6	8.3	50인미만	1	1.4	
	400-500만원 미만	4	5.6	합계	69	95.8	
	500만원 이상	2	2.8	무응답	3	4.2	
	합계	69	95.8	30세미만	1	1.4	
무응답	3	4.2	35세미만	7	9.7		
연령				40세미만	9	12.5	
				45세미만	12	16.7	
				50세미만	16	22.2	
				50세이상	27	37.5	
				합계	72	100.0	
				평균 연령	46.3세		

○ 주거 및 가구 경제생활 현황

- 설문응답자의 58.3%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세 금액은 약 2억 8천만원 정도.

[표 57]

< 주거형태 >

구분	응답자수	비중(%)	시세/보증금/월세	
주거 형태	부모님집	6	8.3	17,250 만원
	자가	42	58.3	28,440 만원
	전세	16	22.2	4,375 만원
	월세	6	8.3	31 만원
	임대아파트	2	2.8	-
	합계	72	100.0	

- 설문응답자의 73.6%가 3인~4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인 이상 가구 또한 2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평균 가구원수는 4명.

[표 58]

< 설문응답자 가구 성원 현황 >

구분	빈도	퍼센트	
가구원수	단신 가구	2	2.8
	2인 가구	2	2.8
	3인 가구	15	20.8
	4인 가구	38	52.8
	5인이상 가구	15	20.8
	합계	72	100.0

- 반면 가구별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50.0%는 가구당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주 또한 노동자와 유사하게 상당한 저소득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9]

< 가구별 소득 수준 현황 >

구분	가구원수					전체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 (50.0%)	1 (50.0%)	4 (26.7%)	6 (15.8%)	0 (.0%)	12 (16.7%)
	200만원미만	1 (50.0%)	1 (50.0%)	4 (26.7%)	10 (26.3%)	8 (53.3%)	24 (33.3%)
	300만원미만	0 (.0%)	0 (.0%)	5 (33.3%)	13 (34.2%)	4 (26.7%)	22 (30.6%)
	400만원미만	0 (.0%)	0 (.0%)	1 (6.7%)	4 (10.5%)	2 (13.3%)	7 (9.7%)
	500만원미만	0 (.0%)	0 (.0%)	0 (.0%)	2 (5.3%)	1 (6.7%)	3 (4.2%)
	500만원이상	0 (.0%)	0 (.0%)	1 (6.7%)	3 (7.9%)	0 (.0%)	4 (5.6%)
전체	2 (100.0%)	2 (100.0%)	15 (100.0%)	38 (100.0%)	15 (100.0%)	72 (100.0%)	

- 가구의 주 생계유지자는 본인인 경우가 86.1%(62명)로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

[표 60]

< 가구의 주 생계유지자 >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내용	본인	62	86.1
	배우자	7	9.7
	부모	1	1.4
	형제, 자매	1	1.4
	기타	1	1.4
	합계	72	100.0

- 영세사업주 배우자의 경우, 영세사업체의 특징을 반영, 자영업 내지는 설문응답자의 현재의 일을 같이 하는 무급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61] < 배우자의 취업 형태 >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내용	자영업	12	16.7
	정규직	3	4.2
	임시직	4	5.6
	시간제	3	4.2
	같이 일함(무급종사)	14	19.4
	가내부업	1	1.4
	비경제활동	3	4.2
	해당사항 없음	10	13.9
	전업주부	14	19.4
	합계	64	88.9
	무응답	8	11.1
합계	72	100.0	

(2) 사업체 실태 및 현황

- 사업장내 주된 고용 방식은 소사장제나 근로계약을 통한 임금노동자 고용이 주된 방식으로 나타남.
 - '해당사항 없음'은 주로 1인 사업체,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에 해당.

[표 62] < 사업체의 고용 방식 >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내용	소사장제	16	22.2
	근로계약	15	20.8
	해당 없음(본인/무급가족)	25	34.7
	기타	6	8.3
	합계	62	86.1
	무응답	10	13.9
합계	72	100.0	

-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련해서는 26.4%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응답.

[표 63] < 사업주 등록 여부 >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내용	등록	50	69.4
	미등록	19	26.4
	합계	69	95.8
	무응답	3	4.2
합계	72	100.0	

-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애로점은 임차료 및 설비 운영비와 불안정한 대금 회수 등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파악됨 (2가지 복수 응답).

[표 64] < 사업체 운영시 애로 사항 >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내용	임차료 및 설비운영비	26	20.3
	원자재 매입액 가격상승	21	16.4
	불안정한 대금회수(결제)	26	20.3
	인건비	11	8.6
	제품영업 및 판매부진	26	20.3
	납품단가	12	9.4
	기타	6	4.7
	합계	128 (71명 응답)	100
	무응답 (1가지도 선택하지 않음)	1	-

- 특히, 하도급 거래상의 문제점과 관련, 하청 단가 인하 압력(29.2%),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15.3%) 등, 하도급 단가와 관련한 애로 사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원청 사업체의 불안정한 하도급 단가 인하와 지연이 중소 영세사업체의 주요 애로점인 상황.

[표 65] < 하도급 거래 관련 애로 사항 >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내용	하도급 대금 60일초과	11	15.3
	하청단가 인하요구	21	29.2
	어음결제	10	13.9
	일방적 발주 취소	2	2.8
	기타	16	22.2
	합계	60	83.3
	무응답	12	16.7
합계	72	100.0	

-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한 주요 육성 정책중 개선이 필요한 내용으로 공장 단지 조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기대출 정책의 개선과 함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6] <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중 개선 요망 사항 >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중소기업대출정책	23	18.3
불공정한하도급관련법	9	7.1
공장단지조성	34	27.0
기술지원부족	15	11.9
대기업성장위주 정책	21	16.7
불합리한 규제완화	6	4.8
세금경감	16	12.7
기타	2	1.6
합계	126 (72명)	100
무응답	1명	

(3) 사회보험 현황

- 건강보험만 '직장' 가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나머지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과 더불어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67] < 사회보험 가입 현황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응답자수	비중(%)
가 입	50	69.4	56	77.8	14	19.4	14	19.4
지역	36	50.0	11	15.3				
직장	11	15.3	43	59.7				
무응답	3	4.2	2	2.8				
미가입	22	30.6	16	22.2	58	80.6	58	80.6
무응답	0	0	2	2.6	0	0	0	0
합계	72	100.0	72	100	72	100	72	100.0

- 특히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비중은 전체 응답자 대비 15.3%에 불과한 상황이며, 산재 및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가입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표 68] < 국민/건강보험 지역 직장 여부(규모별) >

구분	국민연금 지역 직장 여부			건강보험 지역 직장 여부		
	직장	지역	전체	직장	지역	전체
0인(본인,무급가족)	3 (16.7%)	15 (83.3%)	18 (100.0%)	4 (16.7%)	20 (83.3%)	24 (100.0%)
1인	1 (9.1%)	10 (90.9%)	11 (100.0%)	1 (9.1%)	10 (90.9%)	11 (100.0%)
5인미만	4 (26.7%)	11 (73.3%)	15 (100.0%)	3 (18.8%)	13 (81.3%)	16 (100.0%)
10인미만	1 (100.0%)	0 (.0%)	1 (100.0%)	1 (100.0%)	0 (.0%)	1 (100.0%)
20인미만	2 (100.0%)	0 (.0%)	2 (100.0%)	2 (100.0%)	0 (.0%)	2 (100.0%)
소계	11 (23.4%)	36 (76.6%)	47 (100.0%)	11 (20.4%)	43 (79.6%)	54 (100.0%)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역/직장 여부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지역 가입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 가입(또는 미가입)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음.

(4) 부채 현황

- 무응답 20명을 제외한다면, 유효 응답자중 80.8%가 사업경영과 관련한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69] < 부채액 현황 >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0	10	13.9
100-1000만원 미만	4	5.6
1000-5000만원 미만	21	29.2
5000-1억 미만	7	9.7
1억-2억 미만	6	8.3
2억 이상	4	5.6
합계	52	72.2
무응답	20	27.8
합계	72	100.0

- 평균 부채액은 5,457만원, 부채액의 중위값(median)은 2,714만원.
- 부채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의류제조/기타제조업 부문이 부채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 70]

< 업종별 평균 부채액 >

업종	평균 금액	응답자수	업종	평균 금액	응답자 수
금속	6,312.5	8	도,소매	13,000.0	4
인쇄,출판	3,815.0	20	운수	0.0	1
의류제조	10,000.0	1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7,000.0	2
제화	4,500.0	2	오락,문화,운동	3,000.0	1
건설	1,500.0	2	기타제조업	8,166.6	6
숙박및 음식	2,250.0	4	기타	8,000.0	1
합계	5,457.6	52			

- 기업규모별로 부채액을 보면, 대체로 규모가 커질 수록 부채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1인 고용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채액이 4,700만원 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1]

< 기업규모별 부채액 현황 >

업체규모	평균 금액	응답자수
0인(본인,무급가족)	2,805.8	17
1인	4,758.3	12
5인미만	3,285.7	14
10인미만	18,333.3	3
20인미만	20,333.3	3
50인미만	4,000.0	1
합계	5,416.0	50

- 이러한 부채액을 현재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31.9%가 현재 이자 만을 상환하고 있다고 응답. 연체, 또는 신용불량 상태 또한 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2]

< 현 부채액 상환 현황 >

구분	응답자수	비중(%)
이자만 상환	23	31.9
연체	2	2.8
신용불량 상태	3	4.2
해당사항 없음	9	12.5
기타	5	6.9
합계	52	72.2
무응답	20	27.8
합계	72	100.0

(5) 영세사업장 복지 문제

○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복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영세 사업주들은 '영세 사업장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3]

<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복지 문제 해결 방안 >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내용	정부의 처우개선 지원	43	59.7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0	0
	노-사의 인식 변화	14	19.4
	관행상 불가피	11	15.3
	기타	4	5.6
	합계	72	100.0
	무응답	0	0.0
합계	72	100.0	

(6) 성수동 뉴산업 단지 개발

○ 설문 응답자의 63.9%가 성수동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안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의 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안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

[표 74]

< 성수동 거주 여부 및 개발안 인지도 >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예	46
성수동 거주/사업장 소재 여부	개발안 인지 여부	알고 있음	19	26.3
		모르고 있음	27	37.5
아니오		26	36.1	
합계		72	100.0	

- 성수동 뉴 산업단지 개발안에 대한 영세 사업주의 견해는 현재의 영세사업체의 와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며, 따라서 반대하는 견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7.4%(8명)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의 일부 긍정적 견해 또한 존재.

[표 75] <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안에 대한 견해 >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영세사업체 와해	13	28.3
반대 및 지역산업 육성책 시행	16	34.8
스스로 자구책 마련	4	8.7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8	17.4
잘 모름	4	8.7
기타	1	2.2
합계	46	100.0

- 성수동 영세사업체의 경우, 뉴산업단지 개발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반대' 및 '영세사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

[표 76] < 뉴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대책 >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전면 반대운동 필요	4	8.7
영세업종 대책 필요	32	69.6
이전, 폐업 등 준비	5	10.9
관심 없음	4	8.7
기타	1	2.2
합계	46	100.0

5. 설문 조사 결과 요약과 함의

(1)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산업안전

- 설문 조사 결과 성수동 지역 중소영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은 2004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5인 이상 규모) 월 평균 임금 225만원의 63% 수준인 142만원에 불과.
- 이러한 저임금 문제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은 전체 임금노동자 근로시간보다 월 평균 약 9.6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임금 문제와 더불어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음

- 나아가 장시간 노동 속에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작업장 노동으로 인한 산업안전 및 보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2) 노동자간, 계층간 양극화, 구조화의 전형적 사례

- 이러한 저임,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간, 계층간 격차의 확대를 야기하고 있는 주요 요인인 바, 설문 조사 결과, 성수동 지역 영세노동자의 가구당 소득이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평균(299.9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로 성수동 지역은 우리 사회의 계층간 양극화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음
- 나아가 기업복지는 물론이고, 노동법상 최소한의 복지와 사회보험 시스템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영세 노동자에 대한 배제와 격차를 더욱 구조화.

(3) 영세 노동자의 복지 수요 충족 미흡

- 법정 및 기업복지에서의 배제와 더불어 사회적 복지 서비스에서도 영세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 설문 조사 결과, 영세 노동자와 실직 노동자들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낮은 이용율(유경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낮은 이용율의 원인이 '필요성 없음' 등, 본인에게 있기 보다는 '정보 부재', '적정 기관부재', '시간 없음' 등 비자발적 원인으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실질적인 사회복지 배제의 결과를 낳고 있음.

(4) 보다 적극적인 중소 영세사업체 및 영세노동자 정책의 필요성

- 설문조사 결과, 영세 노동자들중 상당수가 '잘 모름' 등의 이유로 사회보험 미가입, 산재보험 미처리, 일부 복지 서비스의 향유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바,

○ 이는 소규모 사업체의 분산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보험 및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당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

○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 뿐만이 아닌 영세 사업주까지 실질적으로 배제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안에서도 이러한 점은 잘 드러나고 있는 바, 성수동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체 및 영세 노동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

(5) 광범위한 영세노동자 조직화 캠페인의 필요성

○ 영세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향상에는 감독, 관리 당국의 법·제도적인 강제와 규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를 통한 자주적인 임금, 노동조건 향상이 필수적.

○ 특히 설문 결과, 대부분이 미조직 노동자이면서 노조에 대해 비우호적·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성수동 지역 노동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에게도 적극적이면서 새로운 조직화 노력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성수동 영세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수동 영세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는 성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성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속, 제화, 인쇄, 의류 등의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노동과 복지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작은 사업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하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적인 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제8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므로 안심하시고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6월

○ 주관 : 영세노동자 노동 복지를 위한 공동 실태조사단 (☎ 02-469-3976)
 ○ 후원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 아름다운재단

응답자	설문번호	성수1가 1동·2동, 성수2가 1동·3동, 기타지역		
	주소		이름	
	전화번호		(사업장명)	
조사자	조사자명		연락처	
	날짜	2005년 월 일		

※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각 문항에 하나만 선택하여 해당란에 **V**자 표시를 해주십시오.

○ 귀하 사업장의 노동실태 및 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의 항목에 맞게 표시(V)해 주십시오.

현 사업장 근무년수	전체 관련 업무 근속년수	사업장 분야	맡은 역할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___년 ___월	___년 ___월	() ①②③④⑤⑥ ⑦⑧⑨⑩⑪⑫ ⑬⑭⑮⑯⑰⑱ ⑲⑳㉑㉒㉓㉔	() 0 1 2 3 4 5 6 7 8 9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상시고용) <input type="checkbox"/> 임시직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input type="checkbox"/> 파견직 <input type="checkbox"/> 소사장제 (도급제) <input type="checkbox"/> 무급종사	<input type="checkbox"/> 1인 <input type="checkbox"/> 5인미만 <input type="checkbox"/> 10인미만 <input type="checkbox"/> 20인미만 <input type="checkbox"/> 50인미만

2. 귀하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표의 항목에 맞게 표시(V)해 주십시오.

(1) 근로시간		(2) 임금	
주당 총 근로시간	()시간 *	월 평균 임금 (수당, 상여금포함)	()만원
근무 형태	<input type="checkbox"/> 교대제 (조 교대) <input type="checkbox"/> 주간근무만	임금 형태	<input type="checkbox"/> 연봉제 <input type="checkbox"/> 월급제 <input type="checkbox"/> 주급제 <input type="checkbox"/> 일급제 <input type="checkbox"/> 개수임금제 (실적제)
토요 휴무	<input type="checkbox"/> 주 5일제 <input type="checkbox"/> 격주 토요일 휴무 <input type="checkbox"/> 매주 토요일 휴무 <input type="checkbox"/> 평일보다 일찍 끝남 <input type="checkbox"/>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		

* 시간의 근무 포함, 일정하지 않을 경우 평균치로 계산

3. 귀하의 현재의 사업장에 어떤 경로로 취업하게 되었습니까?

- ① 스카우트
- ② 직접 방문
- ③ 친척, 지인의 소개 및 추천
- ④ 직업소개소 이용(용역, 파견업체)
- ⑤ 일간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 ⑥ 공공·비영리기관을 통해서(고용안정센터, 무료취업알선센터 등)
- ⑦ 기타()

4. 귀하는 1년 이내에 이직을 하셨습니까?

- ① 예 (4-1번으로)
- ② 아니오 (5번으로)

4-1. 귀하가 이직을 하셨다면, 현재 이 사업장에 일하기 직전에 하셨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 ① 동종 업종
- ② 다른 업종 ()

4-2. 귀하의 전 사업장에서의 고용형태는 어떠했습니까?

- ① 자영업(본인 1인 및 무급 가족종사자의 사업장)
- ② 정규직(상시고용)
- ③ 임시직
- ④ 시간제
- ⑤ 파견직
- ⑥ 소사장제(도급제)
- ⑦ 무급 종사
- ⑧ 고용주(임금노동자1인 이상 고용)

4-3. 귀하께서 이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업장이전 및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 ② 정리해고나 감원, 명퇴 등으로
- ③ 사업주가 그만두라하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됨
- ④ 계약기간이 끝나서
- ⑤ 적성·능력(자기기술, 경험부족)이 맞지 않아서
- ⑥ 근로조건이 나빠서(장시간 노동, 높은 강도의 노동, 작업환경 등)
- ⑦ 고용이 불안해서

- ⑧ 장래성이 없어서
- ⑨ 임금이 적어서
- ⑩ 집안사정(결혼, 출산, 육아, 간병 등)
- ⑪ 학업, 건강, 연령 등 개인상의 이유
- ⑫ 기타()

5. 현행법상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사업장에서 가입 유무를 표시 (V) 해 주세요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형태	가입여부	가입형태		
① 가입	<input type="checkbox"/> 직장	① 가입	<input type="checkbox"/> 직장	① 가입	① 가입
② 미가입	<input type="checkbox"/> 지역	② 미가입	<input type="checkbox"/> 지역	② 미가입	② 미가입
				③ 잘모름	③ 잘모름

* 하나라도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잘 모를 경우 5-1번으로 가주세요.

5-1. 귀하의 사업장에서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로계약 과정에서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서
- ② 임금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 ③ 신용불량 등 개인의 사정으로
- ④ 국가의 보험정책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 ⑤ 잘 몰라서
- ⑥ 기타 ()

※ 6번은 사업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법정 복리후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하께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표시(V)해 주십시오.

법정 복리후생 항목	6. 본인의 혜택여부		
	① 받을 수 있다	② 받을 수 없다	③ 모른다
(1) 퇴직금			
(2) 월차휴가			
(3) 연차휴가			
(4) 주휴수당			
(5) 시간외 수당			
(6) 식사비용 보조			
(7) 여름휴가			
(8) 상여금			
(9) 휴업수당			
(10) 병가(상병휴가)			
(11) 육아휴직			
(12) 생리휴가(여성만)			
(13) 출산휴가(여성만)			

* 법정 복리후생 항목 중 (12) 생리휴가, (13) 출산휴가는 여성만 답해주세요.

6-1. 귀하의 사업장에서 위의 복리후생 항목 중 하나라도 혜택 받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근로계약 과정에서 사업주의 요구
- ② 대부분의 영세공장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관행적)
- ③ 공장의 경영상의 어려움
- ④ 대체인력이 없어서
- ⑤ 사업주(혹은 본인)가 제공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 ⑥ 기타 ()

7. 일반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영세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제공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②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③ 사업주의 기업윤리와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 ④ 영세사업장의 관행 및 상황 상 해결방안이 거의 없다.
- ⑤ 기타 ()

8. 귀하께서는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곳에 상담을 하시겠습니까?

- ① 회사 관리자
- ② 직장동료
- ③ 노동조합
- ④ 시민단체
- ⑤ 지방 노동사무소(노동부)
- ⑥ 정당 및 정치인
- ⑦ 노무사 및 변호사
- ⑧ 기타 ()

9. 지역 업종별로 인쇄, 제화, 의류업, 중소기업일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귀하는 위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없다 (9-1번으로)
- ② 있다 (10번으로)
- ③ 이미 가입하고 있다 (10번으로)
- ④ 관심 없다 (10번으로)

9-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입 자격이 없어서
- ② 노동조합활동이 불만족스러워서
- ③ 가족, 친지, 동료 등 주위의 만류로
- ④ 사용자 측의 만류로(회사 측의 간섭으로)
- ⑤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⑥ 기타 ()

※ 10번 문항은 서울시와 성동구청은 성수동 준 공업단지를 첨단 벤처 단지 및 바이오 산업 단지로 조성할 계획(성수동 뉴 산업단지 개발안)이며,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10. 귀하는 성수동에 거주하시거나, 일하는 사업장의 소재가 성수동입니까?

- ① 예 (10-1번으로)
- ② 아니오 (11번으로)

10-1.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0-2.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에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① 거대 산업 유치만 보장하고 영세 사업장은 해체될 것이다.
- ② 뉴산업단지 개발에 반대하며 성수동 지역의 인쇄, 제화, 금속 등의 영세업종은 지역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호 육성해야 한다.
- ③ 현재 성수동에 있는 영세 업종은 전망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이전하던지 업종을 전환하던지 스스로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④ 지역 환경도 좋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 ⑥ 기타 ()

10-3. 성수동 준공업지대가 뉴산업단지로 개발이 예정됨에 따라 영세업종 종사자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① 뉴산업단지 개발에 반대하며 유치계획에 대한 전면 반대운동이 필요하다.
- ② 영세 업종의 생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 ③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전, 폐업, 업종 전환 등을 고민하고 있다.
- ④ 관심 없다.
- ⑤ 기타 ()

○ 귀하 사업장의 노동안전 및 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다음은 일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중 귀하가 일하면서 실제로 노출되는 유해요인이 있다면 표시(V)해주시고, 노출되는 정도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되는 칸에 표시(V)해 주십시오.

유해요인	노출유무		심각도		
	유	무	매우 심각	심각한 편	별로 심각하지 않다
(1) 유기용제(신나, 톨루엔, 벤젠 등)			①	②	③
(2) 산, 염기 등 유해 화학물질			①	②	③
(3) 고온 혹은 저온			①	②	③
(4) 유해광선			①	②	③
(5) 진동			①	②	③
(6) 소음			①	②	③
(7) 중량물 취급(20kg이상)			①	②	③
(8) 반복작업			①	②	③
(9) 불편한 자세			①	②	③
(10) 위험한 기계			①	②	③
(11) 먼지(분진)			①	②	③

* 심각도는 노출유무에서 '유'에 답하신 분만 표시해주세요.

12. 귀하의 작업장에서 작업환경(유해요인 등)을 개선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 가능)

- ① 사업주가 작업환경의 개선 의지가 없다.
- ② 설비,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 ③ 유해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잘 모른다.
- ④ 공장 사무실이 임대라서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⑤ 기타 ()

13. 귀하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일하다가 한번이라도 다치거나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다치거나 병에 걸린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그랬습니까?

- ① 있다 → 총 ()번 (13-1번으로) ② 없다 (14번으로)

13-1. 귀하는 당시 산재보험 신청을 하셨습니까?(중복 가능)

- ① 했다. ()번 (14번으로) ② 안했다. ()번 (13-2번으로)

13-2.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업장의 윗사람이 신청하지 말라고 해서
- ②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해고될 것 같아서
- ③ 회사가 보상하여서
- ④ 가벼운 사고(질병)이어서
- ⑤ 귀찮아서
- ⑥ 산재보험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 ⑦ 기타 ()

1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큰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산재+일반사고)?

- ① 있다 ② 없다

15. 큰 사고 외에 지난 2주 동안 하루 이상 통증이 있거나, 평소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산재+일반사고)?

- ① 있다 ② 없다

1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을 앓았거나, 현재도 앓고 있습니까(사고를 제외한 직업병+일반질환)?

- ① 예 ② 아니오

17.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아파서 치료를 받았거나, 그 질환으로 인해 활동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사고를 제외한 직업병+일반질환)?

- ① 예 ② 아니오

18. 병의원 이용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치료비 부담
- ② 병원 갈(치료할) 시간이 없음
- ③ 가까운 곳에 적당한 의료기관이 없음
- ④ 기타 ()

19. 귀하는 지역의 보건소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20번으로)
- ② 아니오 (19-1번으로)

19-1.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집(사업장)과 거리가 멀어서
- ② 가까운 곳에 보건소가 있는지 모른다.
- ③ 보건소의 진료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
- ④ 기타 ()

○ 귀하(가정)의 생활의 어려운 점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실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20. 다음 중 현재 귀하와 귀하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순위별로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경제적 어려움 (저임금, 빚, 신용불량 등)
- ②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문제
- ③ 환자 간병 및 치료 문제
- ④ 부모 부양 문제
- ⑤ 주거불안 및 주거문제
- ⑥ 일자리 불안 문제
- ⑦ 여가 및 문화활동 부족
- ⑧ 가족간의 갈등(부부·고부·부모·자녀·형제간 문제)
- ⑨ 기타 ()
- ⑩ 결혼

※ 21번~25번은 귀하의 노동과 관련한 복지 및 개인의 재충전과 관련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IMF이후 지역사회(생활·경제활동 범주 내의 시·군·구)의 공공·비영리기관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답해주세요.

21. 귀하는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1-1번으로)
- ② 없다. (21-2번으로)

21-1.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서비스 이용 건수	(2)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① 1회 ~ 2회	① 고용안정센터 (노동부)
② 3회 ~ 4회	② 지역사회복지관
③ 5회 ~ 6회	③ 구청 및 동사무소
④ 7회 이상	④ 노동조합
	⑤ 지역복지, 시민단체
	⑥ 기타 ()

21-2. 직업훈련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돈이 없어서
- ④ 정보를 잘 몰라서
- ⑤ 필요성이 없어서
- ⑥ 기타 ()

22. 귀하는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해결하기위해서 노동상담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2-1번으로)
- ② 없다 (22-2번으로)

22-1. 노동상담 서비스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서비스 이용 건수	(2)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① 1회 ~ 2회	① 고용안정센터 (노동부)
② 3회 ~ 4회	② 지역사회복지관
③ 5회 ~ 6회	③ 구청 및 동사무소
④ 7회 이상	④ 노동조합
	⑤ 지역복지, 시민단체
	⑥ 기타 ()

22-2. 노동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돈이 없어서
- ④ 정보를 잘 몰라서
- ⑤ 필요성이 없어서
- ⑥ 기타 ()

23. 귀하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3-1번으로)
- ② 없다. (23-2번으로)

23-1. 취업알선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 ① 고용안정센터 (노동부)
- ② 지역사회복지관
- ③ 구청 및 동사무소
- ④ 노동조합
- ⑤ 지역복지, 시민단체
- ⑥ 기타 ()

23-2.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돈이 없어서
- ④ 정보를 잘 몰라서
- ⑤ 필요성이 없어서
- ⑥ 기타 ()

24. 귀하는 재충전을 위한 여가·취미 활동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4-1번으로)
- ② 없다. (24-2번으로)

24-1. 재충전을 위한 여가·취미 활동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 ① 지역사회복지관
- ② 구청 및 동사무소
- ③ 노동조합
- ④ 지역복지, 시민단체
- ⑤ 기타 ()

24-2. 재충전을 위한 여가·취미 활동 서비스(프로그램)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돈이 없어서
- ④ 정보를 잘 몰라서
- ⑤ 필요성이 없어서
- ⑥ 기타 ()

25. 귀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과 관련한 복지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직업훈련
- ② 노동상담
- ③ 취업알선
- ④ 재충전을 위한 여가·취미활동
- ⑤ 기타 ()

※ 26~30번은 귀하의 가정생활에 요구되는 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생활·경제활동 범주 내의 시·군·구)의 공공·비영리기관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답해주세요.

26. 귀하의 가정에서 방과 후 학교 등 아동 복지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6-1번으로)
- ② 없다. (26-2번으로)

26-1. 방과후 학교 등 아동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서비스 이용 횟수	(2)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① 매월 정기	① 동 주민자치센터
② 월 비정기	② 지역사회복지관
③ 필요 따라	③ 종교단체
④ 기타	④ 지역복지, 시민단체
	⑤ 기타 ()

26-2. 방과 후 학교 등 아동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사설 학원에 보내기 때문
- ③ 정보를 잘 몰라서
- ④ 돈이 없어서
- ⑤ 해당사항 없음
- ⑥ 기타 ()

27. 귀하의 가정에서 공공·직장보육시설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7-1번으로)
- ② 없다. (27-2번으로)

27-1. 공공·직장보육시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 ① 직장보육시설
- ② 구립 어린이집
- ③ 지역사회복지관
- ④ 종교단체
- ⑤ 지역복지, 시민단체
- ⑥ 가정 보육도우미
- ⑦ 기타 ()

27-2. 공공·직장보육시설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대기자가 많아서
- ③ 퇴근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 ④ 가족, 친척이 가정에서 돌봄
- ⑤ 정보를 잘 몰라서
- ⑥ 돈이 없어서
- ⑦ 해당사항 없음
- ⑧ 기타 ()

28. 귀하의 가정에서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치매·거동 불편노인 등)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8-1번으로)
- ② 없다. (28-2번으로)

28-1.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치매·거동 불편노인 등)를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 ① 구청 및 동사무소
- ② 지역사회복지관
- ③ 종교단체
- ④ 지역복지, 시민단체
- ⑤ 기타 ()

28-2.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치매·거동 불편노인 등)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가족, 친척이 가정에서 돌봄
- ③ 정보를 잘 몰라서
- ④ 돈이 없어서
- ⑤ 해당사항 없음
- ⑥ 기타 ()

29. 귀하의 가정에서 가정·생활 상담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9-1번으로)
- ② 없다. (29-2번으로)

29-1. 가정·생활 상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 ① 구청 및 동사무소
- ② 지역사회복지관
- ③ 종교단체
- ④ 지역복지, 시민단체
- ⑤ 기타 ()

29-2. 가정·생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정보를 잘 몰라서
- ④ 돈이 없어서
- ⑤ 필요성이 없어서
- ⑥ 기타 ()

30. 귀하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초등·중등 방과 후 교육 서비스
- ② 영·유아 보육 서비스
- ③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④ 가정·생활 상담 문제
- ⑤ 기타 ()

○ 귀하 및 가정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31번~34번까지의 문항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2. 나이 만 () 세

33. 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중퇴포함) ③ 전문대졸(중퇴포함) ④ 대학이상

34. 결혼 ① 미혼 ② 기혼

※ 35번~37번까지의 문항은 귀하의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35. 귀하를 포함한 총 가구원 수. 총() 명

36.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귀하의 가족을 있는 대로 표시(V)해 주세요.
 ① 부 ② 모 ③ 남편 ④ 아내 ⑤ 아들 ⑥ 딸 ⑦ 조부 ⑧ 조모 ⑨ 형제 ⑩ 자매
 ⑪ 기타 ()

37. 자녀가 있는 경우만 대답해주세요. 귀하의 자녀가 해당되는 곳에 적어주세요.
 ㉠ 1세~7세 () 명 ㉡ 초등학교 () 명 ㉢ 중학교 () 명
 ㉣ 고등학교 () 명 ㉤ 대학교 () 명 ㉥ 대학원 () 명 ㉦ 기타 () 명

※ 38번~40번까지의 문항은 귀하의 주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38. 귀하의 주거형태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① 부모님 집 ② 자가 ③ 전세 ④ 월세 ⑤ 임대아파트 ⑥ 무상(더부살이)

39. 귀하의 주거형태에 따른 시세 및 보증금,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
 ① 시세/ 보증금 약 () 만원, 월세 약 () 만원

40. 귀하는 어느 지역에 거주합니까?
 ① 서울 성동구 ② 서울의 다른 지역 _____ ③ 경기, 인천 ④ 기타 _____

※ 41번~43번까지의 문항은 귀하 가족의 경제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41. 귀하 가족의 주된 생계유지자는 누구입니까?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모 ④ 자녀 ⑤ 형제, 자매 ⑥ 연금 및 국가지원금 ⑦ 기타

42. 귀하의 배우자는 어떤 형태로 취업하고 있습니까?
 ① 자영업 ② 정규직(상시고용)
 ③ 임시직 ④ 시간제
 ⑤ 파견직 ⑥ 소사장제(도급제)

⑦ 본인과 같이 일함(무급종사) ⑧ 가내부업
 ⑨ 경제활동 하지 않음 ⑩ 해당사항 없음
 ⑪ 전업주부(가사노동)

43.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금·임대·이자수입·수급 등 포함)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 원 미만 ② 200만 원 미만
 ③ 300만 원 미만 ④ 400만 원 미만
 ⑤ 500만 원 미만 ⑥ 500만 원 이상

※ 긴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분	주택구분	호실종류	주택용
주택구분	층수	호수	주택용
	방/침실	호실종류	
호실종류	방/침실	방/침실	주택용
	욕실	욕실	

성수동 영세 사업장 사업주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수동 영세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는 성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성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속, 제화, 인쇄, 의류 등의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의 애로와 고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작은 사업장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하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적인 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제8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므로 안심하시고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6월

○ 주관 : 영세노동자 노동 복지를 위한 공동 실태조사단 (☎ 02-469-3976)

○ 후원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 아름다운재단

응답자	설문번호	성수1가 1동·2동, 성수2가 1동·3동, 기타지역		
	주소	이름		
	전화번호	(사업장명)		
조사자	조사자명	연락처		
	날짜	2005년 월 일		

※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각 문항에 하나만 선택하여 해당란에 V자 표시를 해주십시오.

○ 귀하 사업장의 노동실태 및 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1) 총 사업경력	(2) 업종 종류	(3) 고용하는 방식	(4) 등록 유무
()년 ()월	() ①②③④⑤⑥⑦⑧ ⑨⑩⑪⑫⑬⑭⑮⑯ ⑰⑱⑲⑳㉑㉒㉓㉔	<input type="checkbox"/> 소사장제 <input type="checkbox"/> 근로계약 <input type="checkbox"/> 파견업체서 소개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본인·무급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5) 업체규모 (임금노동자)	(6) 월 평균 소득	(7) 4대 보험 적용여부
<input type="checkbox"/> 0인 <input type="checkbox"/> 1인 <input type="checkbox"/> 5인미만 <input type="checkbox"/> 10인미만 <input type="checkbox"/> 20인미만 <input type="checkbox"/> 50인미만	<input type="checkbox"/> 100만 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200만 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00~300만 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300~400만 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400~500만 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00만 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직장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직장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

2.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2가지를 고르시오)

- | | |
|-----------------|-----------------|
| ① 임차료 및 설비 운영비 | ② 원자재 매입액의 가격상승 |
| ③ 불안정한 대금회수(결제) | ④ 인건비 |
| ⑤ 제품 영업 및 판매부진 | ⑥ 납품 단가 |
| ⑦ 기타 () | |

3. 귀하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부채가 얼마입니까? (만원)

3-1. 귀하는 위의 부채를 어떻게 상환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원금 + 이자 동시 상환 | ② 이자만 상환 |
| ③ 연체 | ④ 신용불량 상태 |
| ⑤ 해당사항 없음 | ⑥ 기타 () |

4. 일반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영세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제공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와 지방정부가 영세사업장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②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③ 사업주의 기업윤리와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 ④ 영세공장의 관행 및 상황 상 해결방안이 거의 없다.
- ⑤ 기타 ()

5. 귀하의 사업장에서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하도대금 60일 초과
- ② 하청단가(저 단가 인하 요구)
- ③ 어음결제(할인료 미지급, 높은 할인을 등)
- ④ 일방적 발주 취소 및 변경
- ⑤ 기타 ()

6. 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선택해주세요)

- ① 현실성 없는 중소기업 대출 정책(자금조달여건개선)
- ② 불공정한 하도급 관련 법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
- ③ 값싼 임대료, 좋은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공장 단지 조성
- ④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부족
- ⑤ 대기업성장위주의 정책
- ⑦ 불합리한 규제 완화
- ⑧ 세금경감
- ⑨ 기타()

※ 7번 문항은 서울시와 성동구청은 성수동 준 공업단지를 첨단 벤처 단지 및 바이오 산업 단지로 조성할 계획(성수동 뉴 산업단지 개발안)이며,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7. 귀하는 성수동에 거주하시거나, 일하는 사업장의 소재가 성수동입니까?

- ① 예 (7-1번으로)
- ② 아니오 (8번으로)

7-1.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7-2.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에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① 거대 산업 유치만 보장하고 영세 사업장은 해체될 것이다.
- ② 뉴산업단지 개발에 반대하며 성수동 지역의 인쇄, 제화, 금속 등의 영세업종은 지역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호 육성해야 한다.
- ③ 현재 성수동에 있는 영세 업종은 전망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이전하던지 업종을 전환하던지 스스로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④ 지역 환경도 좋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 ⑥ 기타

7-3. 성수동 준공업지대가 뉴산업단지로 개발이 예정됨에 따라 영세업종 종사자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① 뉴산업 단지 개발에 반대하며 계획에 대한 전면 반대운동이 필요하다.
- ② 영세업종의 생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 ③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전, 폐업, 업종 전환 등을 고민하고 있다.
- ④ 관심 없다.
- ⑤ 기타

○ 귀하 및 가정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8번~11번까지의 문항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8.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9. 나이 만 _____ 세

10. 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중퇴포함) ③ 전문대졸(중퇴포함) ④ 대학이상

11. 결혼 ① 미혼 ② 기혼

※ 12번~14번까지의 문항은 귀하의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귀하를 포함한 총 가구원 수: 총 _____명

1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귀하의 가족을 있는 대로 표시(V)해 주세요.

- ① 부 ② 모 ③ 남편 ④ 아내 ⑤ 아들 ⑥ 딸 ⑦ 조부 ⑧ 조모 ⑨ 형제 ⑩ 자매
- ⑪ 기타 _____

14. 자녀가 있는 경우만 대답해주세요. 귀하의 자녀가 해당되는 곳에 적어주세요.

- ㉠ 1세~7세 : _____명 ㉡ 초등학교 : _____명 ㉢ 중학교 : _____명
- ㉣ 고등학교 : _____명 ㉤ 대학교 : _____명 ㉥ 대학원 : _____명 ㉦ 기타 : _____명

※ 15번~17번까지의 문항은 귀하의 주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5. 귀하의 주거형태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 ① 부모님 집 ② 자가 ③ 전세 ④ 월세 ⑤ 임대아파트 ⑥ 무상(더부살이)

16. 귀하의 주거형태에 따른 시세 및 보증금,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시세/ 보증금 약 () 만원, 월세 약 () 만원

17. 귀하는 어느 지역에 거주합니까?

- ① 서울 성동구 ② 서울의 다른 지역 ③ 경기, 인천 ④ 기타

※ 18번~20번까지의 문항은 귀하 가족의 경제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귀하 가족의 주된 생계유지자는 누구입니까?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모 ④ 자녀 ⑤ 형제, 자매 ⑥ 연금 및 국가지원금 ⑦ 기타

19. 귀하의 배우자는 어떤 형태로 취업하고 있습니까?

- ① 자영업 ② 정규직(상시고용)
- ③ 임시직 ④ 시간제

- ⑤ 파견직 ⑥ 소사장제(도급제)
- ⑦ 본인과 같이 일함 (무급종사) ⑧ 가내부업
- ⑨ 경제활동 하지 않음 ⑩ 해당사항 없음
- ⑪ 전업주부(가사노동)

20.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금·임대·이자수입·수급 등 포함) 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 원 미만 ② 200만 원 미만 ③ 300만 원 미만 ④ 400만 원 미만
- ⑤ 500만 원 미만 ⑥ 500만 원 이상

※ 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분	성명	연령	성별	직업	소득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연금					
국가지원금					
기타					

- ⑥ 장래성이 없어서
 - ⑦ 계약기간이 끝나서
 - ⑧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 ⑨ 적성·능력(자기기술, 경험부족)이 맞지 않아서
 - ⑩ 집안사정(결혼, 출산, 육아, 간병 등)
 - ⑪ 학업, 건강, 연령 등 개인상의 이유
 - ⑫ 기타()
-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희망하시는 일자리(직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8. 귀하께서는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희망하는 항목에 표시(V)해 주십시오.

사업장 분야	말은 역할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형태
()	()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임금노동자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규직(상시고용) <input type="checkbox"/> 임시직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input type="checkbox"/> 파견직 <input type="checkbox"/> 소사장제(도급제) <input type="checkbox"/> 무급종사	<input type="checkbox"/> 1인 <input type="checkbox"/> 5인미만 <input type="checkbox"/> 10인미만 <input type="checkbox"/> 20인미만 <input type="checkbox"/> 50인미만	<input type="checkbox"/> 전일제 근무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근무
①②③④⑤⑥	0 1 2 3 4			
⑦⑧⑨⑩⑪⑫⑬	5 6 7 8 9			
⑭⑮⑯⑰⑱⑲⑳				
㉑㉒㉓㉔				

9. 만약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귀하께서 희망하는 직종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어떤 직종이라도 취업 하겠다
- ② 일단 취업한 후 생각 하겠다
- ③ 희망 직종이 아니면 취업하지 않겠다
- ④ 그때 가서 결정 하겠다

10. 귀하께서는 실직한 이후 최근에 자영업(소규모 가게, 노점, 트럭으로 채소 장사 등)을 해보셨거나 앞으로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 ② 해본 적이 있다 (무엇?)
- ③ 앞으로 해볼 생각이다 (무엇?)

○ 각종 실업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답하여 주십시오.

11.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 중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 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 ② 공공직업소개, 취업정보망 확대
- ③ 새로운 일자리 창출노력
- ④ 기업 고용안정 지원
- ⑤ 개인 사업자금 융자
- ⑥ 기타 ()

12. 정부의 생활안정대책 중 귀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공공근로사업
- ② 실업급여 대상 확대 및 수준제고
- ③ 기존 의료보험, 연금제도 확대적용 (의료보험료 50% 지원)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적용
- ⑤ 생계비 대부사업 확대
- ⑥ 아동, 장애인, 노인 관련 서비스 확충
- ⑦ 생업자금 융자 (창업자금 융자)
- ⑧ 노숙자 보호 (쉼터)
- ⑨ 각종 상담사업

○ 귀하(가정)의 생활의 어려운 점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13. 다음 중 현재 귀하와 귀하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순위별로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경제적 어려움 (저임금, 빚, 신용불량 등)
- ②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문제

- ③ 환자 간병 및 치료 문제
- ④ 부모 부양 문제
- ⑤ 주거불안 및 주거문제
- ⑥ 일자리 불안 문제
- ⑦ 여가 및 문화활동 부족
- ⑧ 가족간의 갈등 (부부, 고부, 부모 자녀 간 문제)
- ⑨ 기타 ()
- ⑩ 결혼

※ 14번~18번은 귀하의 노동과 관련한 복지 및 개인의 재충전과 관련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IMF이후 지역사회(생활·경제활동 범주 내의 시·군·구)의 공공·비영리기관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답해주세요.

14. 귀하는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4-1번으로)
- ② 없다. (14-2번으로)

14-1.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서비스 이용 건수	(2)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① 1회 ~ 2회	① 고용안정센터 (노동부)
② 3회 ~ 4회	② 지역사회복지관
③ 5회 ~ 6회	③ 구청 및 동사무소
④ 7회 이상	④ 노동조합
	⑤ 지역복지, 시민단체
	⑥ 기타 ()

14-2. 직업훈련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돈이 없어서
- ④ 정보를 잘 몰라서
- ⑤ 필요성이 없어서
- ⑥ 기타 ()

15. 귀하는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해결하기위해서 노동상담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5-1번으로)
- ② 없다. (15-2번으로)

15-1. 노동상담 서비스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서비스 이용횟수	(2)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① 1회 ~ 2회	① 고용안정센터 (노동부)
② 3회 ~ 4회	② 지역사회복지관
③ 5회 ~ 6회	③ 구청 및 동사무소
④ 7회 이상	④ 노동조합
	⑤ 지역복지, 시민단체
	⑥ 기타 ()

15-2. 노동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돈이 없어서
- ④ 정보를 잘 몰라서
- ⑤ 필요성이 없어서
- ⑥ 기타 ()

16. 귀하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6-1번으로)
- ② 없다. (16-2번으로)

16-1. 취업알선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 ① 고용안정센터 (노동부)
- ② 지역사회복지관
- ③ 구청 및 동사무소
- ④ 노동조합
- ⑤ 지역복지, 시민단체
- ⑥ 기타 ()

16-2.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돈이 없어서
- ④ 정보를 잘 몰라서
- ⑤ 필요성이 없어서
- ⑥ 기타 ()

17. 귀하는 재충전을 위한 여가·취미활동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7-1번으로)
- ② 없다. (17-2번으로)

17-1. 재충전을 위한 여가·취미활동 서비스(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 ① 지역사회복지관
- ② 구청 및 동사무소
- ③ 노동조합
- ④ 지역복지, 시민단체

⑤ 기타 ()

17-2. 재충전을 위한 여가·취미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돈이 없어서
- ④ 정보를 잘 몰라서
- ⑤ 필요성이 없어서
- ⑥ 기타 ()

18. 귀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과 관련한 복지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직업훈련
- ② 노동상담
- ③ 취업알선
- ④ 재충전을 위한 여가·취미활동
- ⑤ 기타 ()

※ 19~23번은 귀하의 가정생활에 요구되는 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생활·경제활동 범주 내의 시·군·구)의 공공·비영리기관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답해주세요.

19. 귀하의 가정에서 방과 후 학교 등 아동 복지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9-1번으로)
- ② 없다. (19-2번으로)

19-1. 방과후 학교 등 아동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1) 서비스 이용 횟수	(2)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① 매월 정기	① 동 주민자치센터
② 월 비정기	② 지역사회복지관
③ 필요 따라	③ 종교단체
④ 기타	④ 지역복지, 시민단체
	⑤ 기타 ()

19-2. 방과 후 학교 등 아동 복지서비스 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사설 학원에 보내기 때문

- ③ 정보를 잘 몰라서
- ④ 돈이 없어서
- ⑤ 해당사항 없음
- ⑥ 기타 ()

20. 귀하의 가정에서 공공·직장보육시설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0-1번으로)
- ② 없다. (20-2번으로)

20-1. 공공·직장보육시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 ① 직장보육시설
- ② 구립 어린이집
- ③ 지역사회복지관
- ④ 종교단체
- ⑤ 지역복지, 시민단체
- ⑥ 가정 보육도우미
- ⑦ 기타 ()

20-2. 공공·직장보육시설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대기자가 많아서
- ③ 퇴근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 ④ 가족, 친척이 가정에서 돌봄
- ⑤ 정보를 잘 몰라서
- ⑥ 돈이 없어서
- ⑦ 해당사항 없음
- ⑧ 기타 ()

21. 귀하의 가정에서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치매·거동 불편노인 등)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1-1번으로)
- ② 없다. (21-2번으로)

21-1.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치매·거동 불편노인 등)를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공공·비영리기관 중에서)

- ① 구청 및 동사무소
- ② 지역사회복지관
- ③ 종교단체
- ④ 지역복지, 시민단체
- ⑤ 기타 ()

21-2.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치매·거동 불편노인 등) 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적당한 기관이 없어서
- ② 가족, 친척이 가정에서 돌봄
- ③ 정보를 잘 몰라서
- ④ 돈이 없어서
- ⑤ 해당사항 없음
- ⑥ 기타 ()

⑨ 해당사항 없음

⑩ 전업주부(가사노동)

36.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금·임대·이자수입·수급 등 포함)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 원 미만
- ② 200만 원 미만
- ③ 300만 원 미만
- ④ 400만 원 미만
- ⑤ 500만 원 미만
- ⑥ 500만 원 이상

※ 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이상호

* 본 토론문은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 사업주 실태조사(집필 김성기): 이하 실태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정책의제와 관련하여 <노동복지 실태조사>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실태조사>의 내용은 수도권지역 중소영세 사업장의 일반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 수도권의 구 산업지역(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나 소속 노동자 모두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 경영난에, 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과 노동조건 악화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실태조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공장운영의 어려움과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의 결과는 현재 제조업 영세사업장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먼저 임차료 인상과 운영비 부족,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비용증가 등과 같은 재원운영문제이다. 이는 결국 영세사업장들이 자신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조달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긴급한 경우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영세사업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시스템에서 영세사업장이 봉착하고 있는 금융지원문제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몇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임대료, 사채와 대부업에 대한 엄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영세사업장들이 시중은행의 금융제도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비공식적 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고이자와 강제집행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 경제민주화본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 대부업 이자율규제 등과 같은 법안을 제조업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조항을 보다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일반(300인 이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대출비율을 규모별로 나누어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대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문제는 이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강제력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금융평가법/미국의 지역채투자법과 같은 제도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이행여부에 따라 지점 및 출점제한, 최저보유고 변동 등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셋째, 요즘 주목받고 있는 지역금융기관의 활성화방안이다. 현재 '사회연대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통합적 기업금융지원제도를 보다 더 발전시켜 영세사업장, 특히 5인 이하 사업장의 금융지원 및 경영지도를 동시에 하는 지역금융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이 있다.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법규정을 바꾸어 지역토착형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정부가 중소기업지원금융이 대부분 운영비(설비확충) 보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원금융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운영체계와 평가구조의 비투명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정책 그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를 사회에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라리 지원금을 중소기업의 특화된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보조금, 직업재교육과 직업전환보조비, 고기술/고속련 지원금 등의 형태에 지원금을 확충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역량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영세사업장에게 고충을 주는 두 번째 큰 문제는 하도급문제이다. 이미 <실태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수동에 집중되어 있는 인쇄 및 제화업종의 경우도 하도급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대금회수의 불안정성, 일방적인 단가인하 등과 같은 문제들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 문제점이다. 그리고 하도급문제는 이미 많이 공론화되어 있고, 당에서도 조승수 의원실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개정안을 올리기도 했다. 하도급법의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구분되게 민주노동당이 요구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소개되고 있는 성과공유제, 공동기술개발 및 교육협력 등을 보다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정책과 같이 단순히 개별 대기업의 자유의사로 내맡길 것이 아니라, 하도급법 규정에 있는 벌칙과 동기부여에 대한 규정을 보다 더 현실화시켜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투자라는 관점 하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하도급문제는 개별기업의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된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이로 인한 비용부담증가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하도급문제를 산업(업종)구조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정부와 대기업의 재정출연을 전제로 노사(정)이 참가하는 산업(업종)별 발전협의회 구성이다. 이 기구를 통해 산업별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제조업공동화 대응, 중소기업의 기술발전/직업능력/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사례는 독일의 경우 사양산업 사업장 비율이 높았던 서부지역(루르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저임금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장되고 있는 영세사업장간 과당경쟁과 빈번한 입퇴출을 막기 위해서 법정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구직란 하에서 노동력부족"이라는 기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력수급의 문제는 결국 중소기업, 특히 영세사업장의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기술능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와 함께, 직업능력을 지닌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 <실태조사>의 내용 중 '서울 동북부지역 첨단산업단지'에 간략히 논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동북부지역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지역이고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기초지자체의 구상은 첨단산업과 신산업 유치에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실태조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첨단과 전통이 조화되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방향은 옳바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시정비사업과 건설사업위주의 “하드웨어” 보다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들의 특성에 맞게 기술지원, 인력알선, 금융증개와 경영지도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육성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둘째, 단지분양에 있어 기존 영세사업장의 입주우선권을 보장하고 장기임대방식을 통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환경과 노동복지”가 조화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단지 내에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보육, 의료, 직훈, 여가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조성 초기에 이를 지역사회에 여론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영세사업장들은 업종별 협의회를 만들어 기존의 지역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단체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한편 지역단위의 노동단체와 노조는 연대기구를 만들어 노동친화적 지역산업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세사업장 노동 및 복지 실태 토론회

손 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이미 노동의 문제를 넘어서서 양극화와 신빈곤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사업장의 노동 및 산안/복지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현재의 논의는 매우 의미있는 일.

○ 이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사회적 의제의 핵심에는 비정규 - 영세 노동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대안과 진전이 없는 한, 노동의 문제는 물론이고, 현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노동의 목소리 또한 공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이런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로 제출된 노동과 복지·산안 부문의 요구들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실천적이라는 점에서 타 영세노동자·사업체 밀집 지역에 대해서까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이하에서는 성수동 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발표된 내용에 기반해 중소 영세 사업장의 영세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안적 방향을 중범위 수준에서 시론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함.

2. 영세 노동자의 노동 및 복지 실태의 문제점

○ 이미 앞에서의 발표문에서 제출되었던 것처럼 성수동 지역 영세노동자들의 경우,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열악한 노동복지, 산업안전 상의 문제 등 전형적인 영세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음.

○ 나아가 이들은 기업규모(종업원 수 기준)에서 영세 노동자일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비정규 노동의 특징 또한 같이 지니고 있는 노동자이기도 함.

○ 문제는 이러한 영세노동자의 문제가 지역적으로는 성수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며, 그 유형 또한 거의 변함없이 고착화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

○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와 그 결과인 신빈곤 문제로까지 그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1) 법, 제도상의 문제.

○ 5인 이상만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 제도상의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소영세사업체의 고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음.

○ 특히 노동법상의 노동복지는 노동자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월차, 연차,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법상의 기본적인 노동복지 조차도 영세노동자는 향유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원천 배제하고 있는 상황.

2) 법, 제도의 준수 문제

○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법, 제도상의 미비점 보다도 더욱 중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게 법 내용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

○ 이러한 현실은 경제적으로, 지불능력에 있어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장의 한계로 인해 묵인·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법·제도상의 이행, 준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아울러 영세노동자의 권리의식 제고방안과 더불어 영세사업주 스스로가 법 이행에 나설 수 있는 유인구조와 방안 또한 필요.

3) '미조직 노동자'로서의 영세 노동자 문제.

○ 이미 여러 실태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미조직 노동자라 할 수 있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이들은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 우호적인 의식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해 일정 정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

○ 현행 대공장 -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 구조하에서 중소기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열위의 조건에 처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며, 무엇보다도 신규 조직화에 투여할 조직자원이 많지 않다는 점과 아울러,

○ 무엇보다도 현재의 이러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조직화가 여전히 기존의 조직 노동 내에서도 매우 미미한 상황에 그치고 있다는 점.

3. 대안적 방안.

1) 법, 제도 준수의 실효성 제고

○ 현장 근로감독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충원과 확충

- 이미 발표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국내 근로감독관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가 1,160개, 담당 노동자 수가 9,881명에 이를 정도이며(매일노동뉴스 2004년 10월 6일자 보도), 이에 따라 적극적인 현장 감독을 집행하지 못하고, 진정 및 체불임금 사건 처리만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

○ 무엇보다도 법, 집행의 실효성은 당사자 참여시에 가장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 또한 필요.

2) 지역 차원의 準 노·사·정 3자 기구의 설립과 운용의 필요성

○ 영세 노동자의 문제는 영세 사업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점은 법, 제도상의 문제를 통해 현재의 영세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

○ 무엇보다도 영세사업주와 영세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의 접점을 지역 차원에서 형성할 수 있고 또 지역 차원의 노·사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準 노·사 협의 통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의

필요성 존재.

- 이러한 기구를 통해 성수동 영세 사업장내 지역의 고용·취업망, 각종 사회적 복지 서비스의 수요 파악 및 그 실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수동 지역 뉴산업단지 개발안에 대한 영세 노동자와 사업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의 틀 가능.

3) 조직 노동의 영세 노동자 조직화

○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별 노조 체계하에서 대공장 노조의 입단협을 통한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전략의 추구가 현재의 양극화 문제를 악화시킨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결국, 현재 대부분이 미조직 노동자이면서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 영세 노동자에게 대공장 중심의 선도적 입단투를 통한 전체 노동자의 이해 대변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어 오고 있는 상황.

○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공장과 달리 조직 자원이 부족한 영세노동자에게는 새로운 조직 전략의 필요성 대두.

- 현재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요구 중심의 대중적 캠페인의 형성과 이를 통한 조직화.